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海 珠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mestic Retrospective Fashion

- Focusing On 1990s -

2001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 攻

安 恩 慶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崔 海 珠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mestic Retrospective Fashion

- Focusing On 1990s -

위 論文을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6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衣 裳 學 科

패션 디자인 專 攻

安 恩 慶

安恩慶의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年 6月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은 많이 배우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항상 자상하고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최해주 교수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정성껏 심사해주신 양미경 교수님, 주성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좋은 가르침을 주신 김경인 교수님, 김용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선이, 함께 공부했던 준석 언니, 귀옥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언제나 사랑과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1년 6월

安 恩 慶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3
II. 복고주의	5
1. 복고주의의 개념과 배경	5
2. 복고주의 패션	12
3. 복고주의 패션 유형	15
III.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	29
1. 국내 패션의 배경	29
2. 국내 복고주의 패션 유형	33
3.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 비교	42
IV.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	47
1. 재현성	47
2. 순수성	51
3. 전통성	52
4. 장식성	54
V. 결 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70

표 목 차

[표 1]	복고주의 개념		10
[표 2]	서양 복고주의 패션의 개념과 유형		16
[표 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개념과 유형		34
[표 4]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		41
[표 5]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 비교		45
[표 6]	국외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		46
[표 7]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		56

그림과 사진 목차

<그림 1>	논문의 구성	4
<사진 1>	고대 이집트 복식	25
	Costume & Fashion, 1998, p.17	
<사진 2>	고대 그리스 복식	25
	20.000 Years of Fashion, 1987, p.106	
<사진 3>	중세 복식	25
	Costume & Fashion, 1998, p.65	
<사진 4>	르네상스 복식	25
	The Culture Fashion, 1996, p.51	
<사진 5>	바로크 복식	25
	Costume & Fashion, 1998, p.111	
<사진 6>	로코코 복식	26
	Costume & Fashion, 1998, p.126	
<사진 7>	엠펙이어 스타일	26
	Costume & Fashion, 1998, p.154	
<사진 8>	버슬 스타일	26
	Costume & Fashion, 1998, p.199	
<사진 9>	페전트 스타일	26
	A History of Fashion, 1980, p.183	
<사진 10>	India 복식	27
	World Dress, 1994, p.143	
<사진 11>	1910년대 스타일	27
	20th century fashion, 1999, p.41	

<사진 12>	1920년대 스타일	27
	20th century fashion, 1999, p.62	
<사진 13>	1930년대 스타일	27
	Costume & Fashion, 1998, p.254	
<사진 14>	1940년대 스타일	27
	20th century fashion, 1999, p.105	
<사진 15>	1950년대 스타일	28
	20th century fashion, 1999, p.143	
<사진 16>	1960년대 스타일	28
	20세기 패션, 2000, p.208	
<사진 17>	1970년대 스타일	28
	20세기 패션, 2000, p.229	
<사진 18>	1980년대 스타일	28
	20th century fashion, 1999, p.224	
<사진 19>	그리스 복식 응용	57
	이신우, ELLE, 1995. 2, p.235	
<사진 20>	중세 복식 응용	57
	매드믹스, ELLE, 1993, 1, p.162	
<사진 21>	르네상스 복식 응용	57
	앙드레 김, 여성동아, 1991, 11, p.196	
<사진 22>	바로크 복식 응용	57
	F.O.9, ELLE, 1996, 9, p.178	
<사진 23>	로코코 복식 응용	57
	이정석, ELLE, 1994, 4, p.690	
<사진 24>	엠펙이어 스타일 응용	57
	앙드레 김, ELLE, 1996, 12, p.319	

<사진 25>	버슬 스타일 응용	58
	앙드레 김, ELLE, 1996, 12, p.320	
<사진 26>	1940년대 스타일	58
	마틴 싯봉, ELLE, 1997, 5, p.327	
<사진 27>	1950년대 스타일	58
	박동준, ELLE, 1996, 12, p.300	
<사진 28>	1960년대 스타일	58
	매드믹스, ELLE, 1996, 5, p.282	
<사진 29>	1960년대 스타일	58
	GV2, ELLE, 1998, 2, p.171	
<사진 30>	1960년대 스타일	58
	비바유, ELLE, 1995, 5, p.246	
<사진 31>	1970년대 스타일	59
	에고, ELLE, 1996, 3, p.274	
<사진 32>	1970년대 스타일	59
	ENC, ELLE, 1994, 5, p.46	
<사진 33>	1970년대 스타일	59
	김동수, 1998, 1, p.187	
<사진 34>	1980년대 스타일	59
	하용수(베이직), ELLE, 1993, 1, p.141	
<사진 35>	동물 무늬 프린트	59
	박윤정, ELLE, 1997, 2, p.251	
<사진 36>	꽃, 나비 무늬 프린트	59
	셀리, ELLE, 1995, 7, p.171	
<사진 37>	천연 소재	60
	이신우, ELLE, 1992, 11, p.176	

<사진 38>	페전트 스타일	60
	오브제, ELLE, 1994, 5, p.188	
<사진 39>	한국풍	60
	설윤형, ELLE, 1993, 1, p.172	
<사진 40>	한국풍	60
	이영희, ELLE, 1995, 12, p.125	
<사진 41>	한국풍	60
	이신우, ELLE, 1994, 5, p.182	
<사진 42>	중국풍	61
	텔레그라프, ELLE, 1998, 2, p.200	
<사진 43>	베트남풍	61
	꾸주베, ELLE, 1994, 3, p.138	
<사진 44>	인디언풍	61
	마씨모, ELLE, 1998, 11, p.211	
<사진 45>	인디언풍	61
	갤러리아 G 스트리트, ELLE, 1999, 12, p.265	
<사진 46>	아프리카풍	61
	문광자, ELLE, 1994, 6, p.2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복식조형은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가 구상화되어 미적으로 표현된 것으로¹⁾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며,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가 있다.²⁾³⁾

복식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⁴⁾⁵⁾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서 복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공존하게 되었다.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고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으며, 과거와 자연에 대한 재인식이 강조되었다.

복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과거 복식을 응용, 재현한 스타일이 대두되었다.

과거 복식의 재등장 현상은 옛것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레트로 스타일

-
- 1) 최해주, 「고대 이집트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1호, 1982.
 - 2)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N.Y.: House of Worth, 1962, pp.69-84.
 - 3)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 T. Batsford Ltd, 1987, pp.2-3.
 - 4) M. E. Roach & J. 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Inc., 1965, pp.64-72.
 - 5)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252.

(Retro Style)', '리바이벌 스타일(Revival Style)', '복고풍', '복고주의'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복고주의 패션은 고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과거의 서양복식과 민속복식을 새롭게 표현하거나 소재, 색상 등에서 자연회귀를 추구한 복식으로 표현되었다.

복고주의는 20세기 후반의 핵심적인 문화현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로의 복귀를 통한 안정감 등의 심리작용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는 “예술가는 현재와 직면하기 위해 과거를 이용한다.”고 하였고,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복고풍 유형은 결코 옛날식의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라 이미지 차용에 의해서 과거성에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복고주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복고주의는 기성세대에게는 과거로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신세대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으로 인식되어 복고주의 패션은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 대두하였다.

복고주의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서양복식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크·로코코, 신고전주의, 버슬 스타일과 1950년대, 1960년대 스타일의 등장에 관해서 고찰하였으며,⁶⁾⁷⁾⁸⁾⁹⁾ 1990년대 국내 패션에서의 복고주의 경향은 연구가

6) 김미진,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장희숙,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9)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서 표현된 복고주의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차이점과 조형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복고주의 패션의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패션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고주의 개념과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의 특성을 비교 고찰한다.

셋째,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표현된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복고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를 파악하여 패션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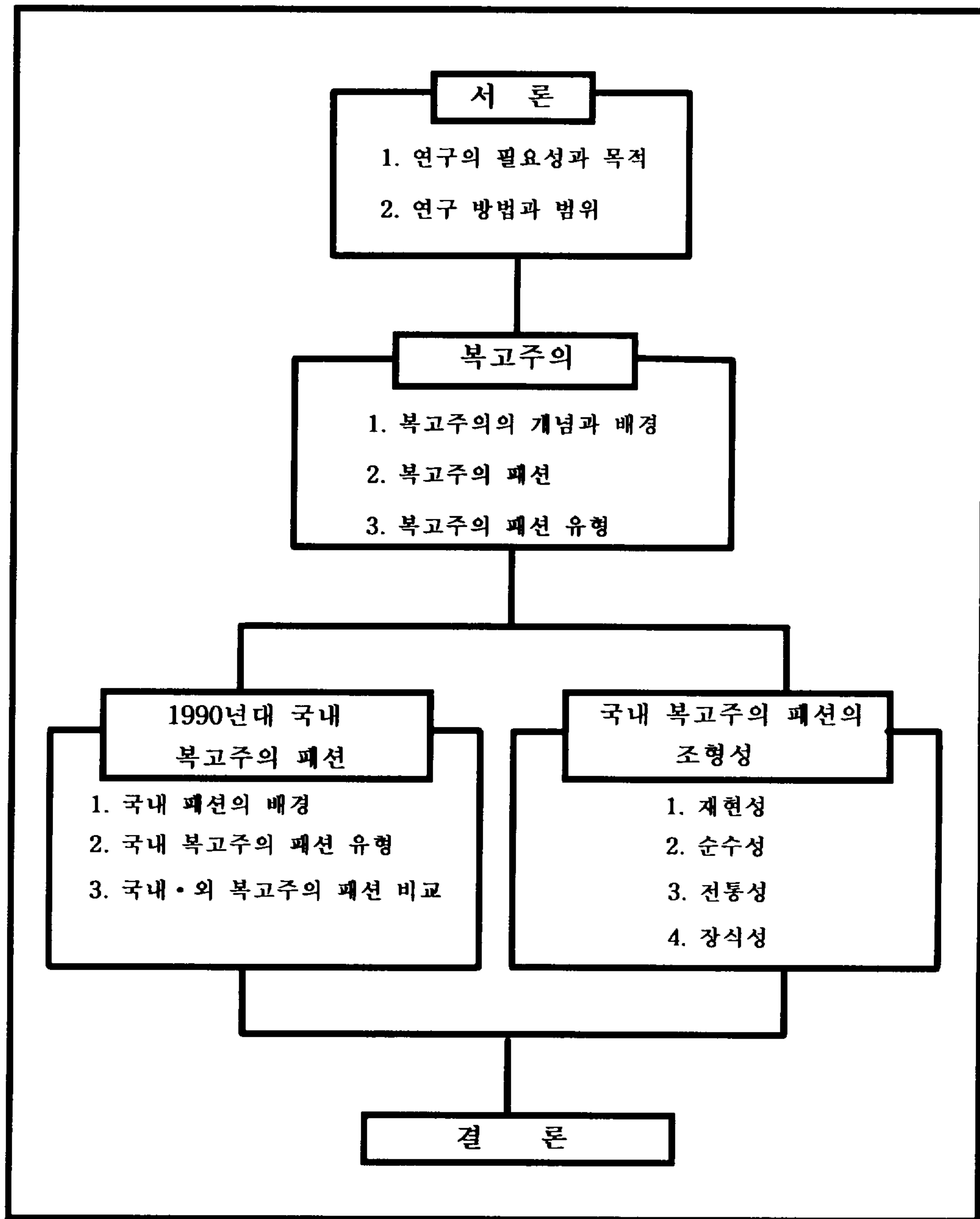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로 하였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는 패션잡지에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의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판 ELLE(1992년 11월~1999년 12월)와 여성동아(1991년 1월~1992년 12월)를 참고로 하였다.

작품 선정 기준은 고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서양복식과 민속복식으로 등장하였던 복식을 재현 또는 응용한 복식과 소재, 색상, 실루엣 등을 통해 자연회귀를 나타내는 복식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문의 구성

II. 복고주의

복고주의 패션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고주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고주의의 개념과 배경

1) 복고주의의 개념

복고(復古)의 사전적 의미는 ‘옛날 모양이나 제도로 돌아감’을 뜻하며,¹⁰⁾ 복고주의(復古主義)는 ‘과거의 사상이나 체제로 돌아가려는 주의’를 말한다.¹¹⁾ 영어사전에서는 ‘Restoration’-복고, 복원, 왕정복고시대, ‘Revival’-재 유행, ‘Retro’-패션, 음악의 리바이벌, 재 유행, 뒤로, 거꾸로, 거슬러의 뜻을¹²⁾ 가지고 있다.

복고주의 개념은 선행 양식을 모방한다는 ‘모방’개념, 재현의 형식으로서 ‘패러디(parody)’개념과 사회동조현상으로서의 ‘유행’과 유사개념 또는 부분개념인 ‘빈티지(vintage)’, ‘패스티쉬(pastiche)’, ‘브리콜라주(bricolage)’ 등의 설명으로 명확해질 수 있다. 복식 디자인을 포함한 예술에서 복고주의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으로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양식 즉, 과거 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10) 양주동, 「국어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아름, 1984, p.360.

11)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1992.

12) 김영모 외 4인, 「옛센스 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8.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¹³⁾¹⁴⁾

퀸시(Quatrèmere de Quincy)는 그의 저서 「모방(De l'imitation)」에서 ‘모방은 결코 복사(copy)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효과의 근원과 지적인 이성, 원인 그리고 원칙 등이 모방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정한 모방은 본질에 대한 넓은 관찰과 연구에 의해 일반화함으로써 그것을 함축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¹⁵⁾ 이것은 비올레 뉁(Viollet le Duc)가 ‘우리는 과거의 명작을 분석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 시대에 주어진 재료와 조건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것으로 종합화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처럼¹⁶⁾ ‘모방’은 복사와 구별되며 단순한 유사성의 추구가 아닌 현재의 조건과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재구성에 의의를 갖는 것이다.¹⁷⁾

‘패러디’는 일종의 비평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으로 이미 잘 알려진 원작을 우습게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모방하여 익살과 풍자,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나타내는 양식이다. 패러디가 ‘단순모방’과 구별되는 점은 유사성 가운데 차이점을 가진 모방이라는 점,¹⁸⁾ 원작과 패러디를 대비시켜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공유하게 한다는 점이다.

패러디의 개념도 모방의 개념처럼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우선 이전

13) 장희숙,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i.

14) 신명진, 「남성 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7.

15) 김억중, “이상적인 모방과 역사적 연속성”, 「공간」, 1985년 1월, p.117.

16) 노남형, 「근대이후 건축양식의 복고성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57.

17) 장희숙, op. cit., p.7.

18) 송미숙, 「시간과 공간의 패러디」, 계간미술, 1987년 봄호, p.164.

에 존재했던 기생적이고 열등한 습작이라는 견해가 현대에 와서는 패러디의 우수성과 그 기법의 확산을 평가해 볼 때, 오히려 그 창조성을 인정하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풍자성의 개념으로 좀더 확장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패러디가 풍자성만을 내포하지 않는 것은 진지한 패러디, 장난스런 패러디 같은 원작에 대립하지 않는 패러디도 있음을 의미한다.¹⁹⁾

‘유행’은 인간행동이나 사회현상의 획일화,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동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일시적 풍조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다.²⁰⁾

‘빈티지’는 ‘숙성되어 최상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복식에 접목되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 가령 한때는 광채를 잃어도 돌연 되살아나는 어느 특정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Oldest-but-Goodies)’ 혹은 ‘오래되어도 새로운 것(New-Old-Fashioned)’이라고 할 수 있다. 레트로는 과거 양식의 느낌이나 감각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여 나타난다면, 빈티지는 주로 예전의 소재나 의복 아이템을 큰 의미변화 없이 나타낸 형태가 많다.

‘패스티쉬’는 고전적으로는, 각각의 널리 알려진 곡조 또는 줄거리의 저자 혹은 작곡가의 양식에 나타났던 음악적·문학적 작문집을 의미한다. 제임슨(Jameson)은 패스티쉬가 저자나 작곡가의 스타일을 해학적으로 모방한 패러디와 정확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패스티쉬는 수사학적 자극이 없는 패러디인 셈이다. 즉, ‘패러디’같은 동기유발이나 풍자적 자극이 없어서 단순한 복사를 실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정호 역시, 패스티쉬는 아예 원본의 고유성을 염

19) 장희숙, op. cit., pp.7-9.

20) 시대패션산업연구원, 「패션과 유행」, P.3,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8에서 재인용.

두에 두지 않으며 중성적인 모방만을 하며 유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풍자적 충돌도 없고 정상적 현실로부터 코믹한 현실을 구분할 때 생겨나는 유머도 상실했다고 하였다. 즉, 자아의 정체감이 소멸되는 속에서 패러디와는 달리 모방의 대상을 그저 모방할 뿐이기 때문에 패스티쉬는 공허한 패러디이며, 유머 감각을 상실한 패러디라고 하였다.²¹⁾

‘브리콜라주’는 사전적으로는 ‘자질구레한 수리나 뜯어 맞추기’, ‘취미로 하는 집안의 잔일이나 아마추어 목수’, ‘별이가 되지 않는 품일 이나 자질구레한 일’을 뜻한다.²²⁾ 이는 ‘잔재와 부스러기들’, ‘잡동사니들’, ‘개인이나 사회의 역사에 대한 시대에 뒤진 흔적’을 새로운 창작물의 구성요소로 이용한다는 뜻이다. 브리콜라주는 과거에 이미 사용되었던 ‘같은 재료들로부터의 연속적인 재구성’ 즉, 요소간의 연속적인 재조합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숫자적으로 한정되어 있겠지만 항상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과의 연속적인 관계들을 성립시킬 수 있다. 어떠한 관계 내에서 임의의 요소가 변화하는 것은 그 구조내의 모든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미마저 변경시킬 수 있다.²³⁾

레트로와 패스티쉬, 브리콜라주는 서로 유사성이 있고 모두 과거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스타일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레트로와 유사하게 브리콜라주는 과거로부터 취해온 재료들과 스타일에서 새로운 의미와 스타일을 창조하지만, 패스티쉬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브리콜라주는 모티브가 있고, 그것은 새로운 의미 창출과 관련이 있어서 허무주의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²⁴⁾

21)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유송옥 외 2인,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1999, pp.212-213에서 재인용.

22) 「Modele Dictionary(FranÇAis-Koreen)」, 서울: 삼화출판사, 1993, p.262.

23) Malcol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Routledge, 1996, pp.163-164.

24) Ibid, pp.163-167.

즉, 패스티쉬는 단순한 복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방이며, 브리콜라주는 과거양식의 재료나 아이টে를 재조합하는 것이며, 레트로는 과거양식의 각 아이টে들의 형태나 특성과 스타일에서부터 그 시대의 감각까지를 응용해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²⁵⁾

복고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모방은 방법상 연속적 계승과 인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⁶⁾ 연속적 계승은 어느 한 시대의 특징적 스타일이 바로 이전 시대의 스타일에 당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부가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아주 먼 고대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새로 형성된 국가의 복식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국가의 전통 스타일에 대한 복고적 성향과 주변 국가의 새로운 요소가 합쳐지고, 이것이 민족적 문화나 종교에 걸맞은 독자적 양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5천년의 패션 역사를 통하여 모방으로서의 복고가 역사의 계속성을 유지시켜온 연결된 고리로 지속되어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⁷⁾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인용으로 모방의 행위에는 항상 이상화(理想化)의 작업이 포함되어 왔는데, 인용으로서의 모방은 그와 같은 이상화의 작업에서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기의 맥락 안에서 모방에 의하여 생긴 암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즉 과거 양식의 단편을 그 시대의 양식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²⁸⁾ 복고주의는 연속적 계승보다는 인용의 방식을 취하여 패러디와 패스티쉬, 유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복고주의는 단지 인용을 넘어서서 하나의 맥락을 빌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새로운 맥락에서 유사성의 한가

25) 천지영, op. cit., pp.18-19.

26) 노남형, op. cit.,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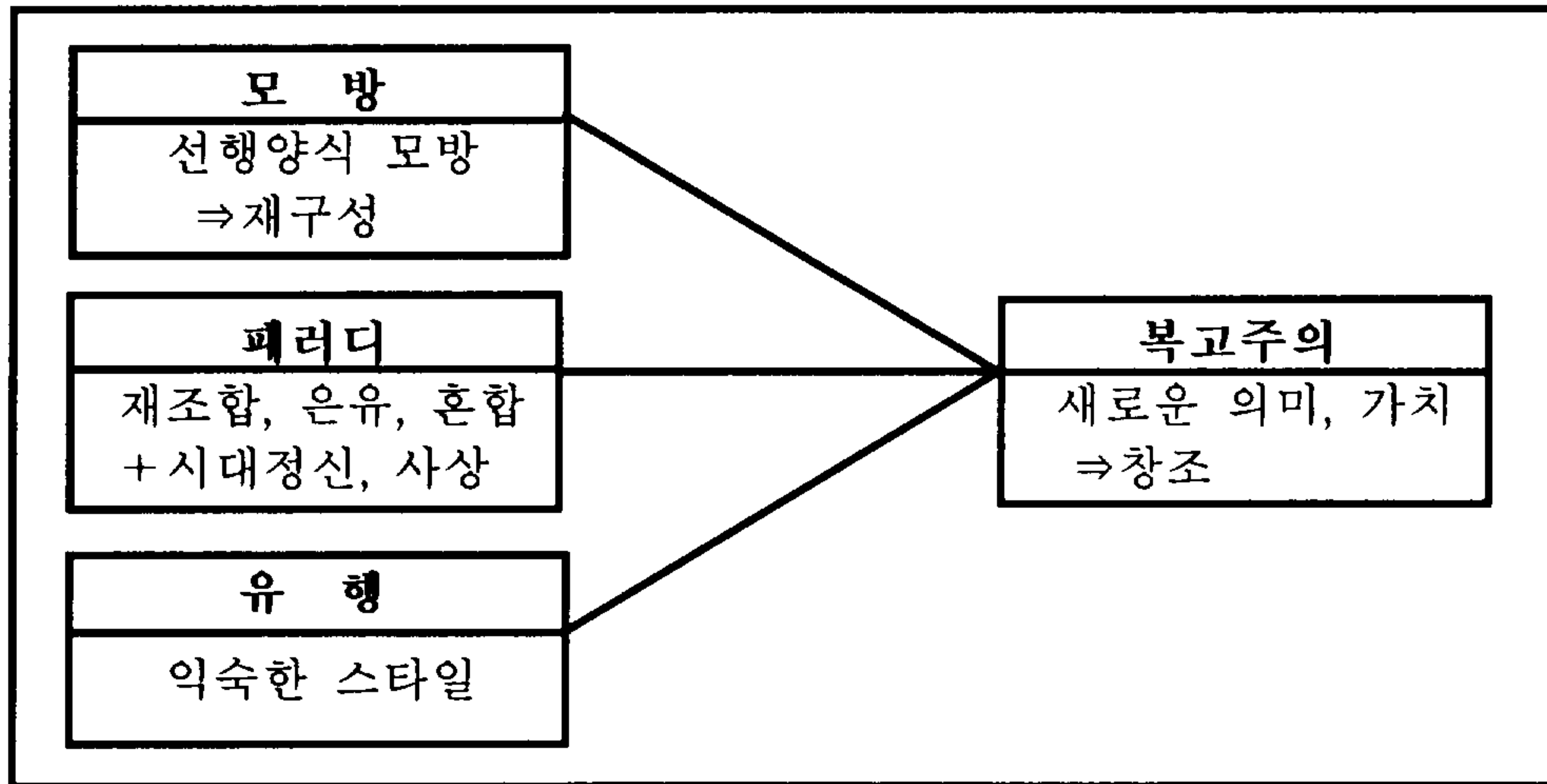
27) 김민자, 「옛날은 어떻게 다시 오는가?」, [월간 멋], 1991년 10월.

28) 노남형, op. cit., p.55.

운데 차이점을 주어 새로운 의미,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복고주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복고주의 개념



2) 복고주의의 배경

복고주의 현상은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서 파괴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삼 옛 것을 찾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²⁹⁾ 이러한 복고주의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예술, 문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복고주의가 형성된 배경에는 20세기 후반의 시대·문화적 상황과 당시의 사회 심리적 조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복고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문화현상

29) 유재부, 「세기말적 경향과 패러다임의 전환」, Fashion Today, 1995년 7월, p.45.

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들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좁은 의미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문예적인 개념으로서 예술,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넓은 의미로는 20세기 후반의 시대 정신이나 정신구조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된 매우 폭넓은 현상을 말한다.³⁰⁾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내부의 반동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 중심의 문화적 쇠퇴로 서구 중심의 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비서구 문화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사이클을 의미한다.³¹⁾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다양하고 잡다한 문화현상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서양과 동양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인 문화현상이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³²⁾ 복고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현대 사회의 기계화되고 물질 문명화된 환경에서 벗어나 과거의 넉넉함과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현대인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며, 둘째, 복고풍도 되풀이되는 유행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것이며, 셋째, 전에 없던 새로운 것, 첨단적인 것을 창작하여 유행시킨다면 그 다음엔 옛것을 다시 내놓아서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여 역사적 회귀를 유도하며,³³⁾ 넷째, 새로운 유행이 고갈되어 한계에 달했을 때 유행의 모티프를 과거에서 찾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낯설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복고주의에서 과거로의 복귀 움직임 뒷면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 주위로부터 보호되고자 하는 심리 외에도 두 가지 정서가 내재되어 있

30)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0, p.12.

31) 김민수, 「모던디자인과 비평」, 안그라픽스, 1997, p.158.

32) 김미진,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5.

3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9, p.248.

다. 즉, 첫째, 새로 다가올 세기에 대한 불안감 즉, 미래에 대한 불안, 새 것에 대한 낯설음이 자의식을 움츠리게 만들어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는 심리이며, 둘째, 이에 따라 과거의 것을 취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이다.³⁴⁾

복고주의에서의 옛것의 재현은 결코 완전한 반복이 아닌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참조하여 이들을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며, 복식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는데,³⁵⁾ 복고풍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등장하는 시대에 따라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디테일에서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 나타나게 된다.³⁶⁾

채머스(Chamers)는 유행의 변화는 사회습성의 변혁, 심리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국내·외의 여러 사건 등에 의한다고 하였다.³⁷⁾ 즉,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과거 복식이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져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⁸⁾

2. 복고주의 패션

20세기에 후반에 들어와 과거의 서양복식과 민속복식을 응용, 재현한 복식, 소재, 색상, 실루엣 등에서 자연회귀를 추구한 복식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이

34) 경향신문(해외), 「[월드프리즘] 세기말의 '향수' 고전주의 열풍」, 1999년 3월 8일자, 신명진, op. cit., p.17에서 재인용

35) 정홍숙, 「Post-modern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 Baroque 복식의 loop와 tassel을 중심으로 -」, 한국복식학회지 25호, 1995년 8월, p.72.

36) 김미진, op. cit., p.4.

37) Chamers, B.G., 「A Fashion Manual」, N.Y., 1946,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9, p. 248에서 재인용.

38) 천지영, op. cit., pp.16-17.

러한 회귀적 경향의 복식 양식은 복고주의 패션, 복고풍,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 노스텔직 패션(Nostalgic Fashion), 패션 리바이벌(Fashion-Revival) 등으로 일컬어진다.³⁹⁾⁴⁰⁾⁴¹⁾⁴²⁾⁴³⁾

복고주의 패션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패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⁴⁴⁾ 레트로 룩(Retro Look)이며 옛날의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올드패션의 리바이벌(revival)을 의미한다.⁴⁵⁾

레트로 패션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71년 S/S컬렉션에서 1940년대 풍의 패션을 재현시킴으로써 완전하게 패션의 한 장르로 등장하였다.⁴⁶⁾

복고주의 패션은 과거와 자연을 동경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중요한 패션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화양식이 도시화·현대화·미래화 되어감에 따라 첨단 과학과 기술 문명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들이 속속 쏟아져 나왔으며, 첨단화·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파괴되지 않은 환경과 인공적인 물체가 없었던 과거를 동경하게 되면서 과거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리, 주위로부터 보호되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남으로써⁴⁷⁾ 패션경향에서

39)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5.

40) 장희숙, op. cit., p.5.

41) 신명진, op. cit. p.57.

42) 천지영, op. cit., p.16

43) 백승희, 「신 회귀(Neo Retro)경향에 의한 식물이미지 패턴 개발 연구: 발염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5.

44)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Vol.1」, 서울: 도서출판 시대, 1988. p.112.

45) Tokyo Esmode, 「Inter Donne Co, Promotion st 2편」, 동경: 대양출판사, p.66., 장희숙, op. cit., p.5에서 재인용.

46)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1995, p.104.

47) 신명진, op. cit., p.16.

도 복고주의가 등장하게되었다. 그리고 각 세기말을 살펴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복고풍 패션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 다른 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전환의 시기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창조적 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나온 역사와 전통이 중요시되어 과거 패션 경향의 절충을 통해 복고주의적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이미 잘 알려진 양식이나 스타일의 재현일 경우, 대중에게 적극 수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고는 과거 복식 개념을 추종하는 것으로부터의 일탈로 기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션감각을 던져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⁴⁹⁾⁵⁰⁾

현대에 가장 주된 테마로 역사와 전통을 재인식한 과거로의 복귀와 디자인에서의 의미추구가 부각되었다. 이를 통하여 역사와 전통은 유용한 것이 되어 인용을 통해서 복고주의가 재등장하였으나,⁵¹⁾ 무조건적인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양식이 모방개념으로 전해져 새로운 표현성으로 강조되는 것이다.⁵²⁾

또한 유행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사회문화도 빨리 변해가면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들로 인해 과거의 것을 가져와 활용하거나 그 형태와 분위기, 감각은 그대로 가져오되 기능적인 면을 추가하여 표현하는 형태로의 레트로 개념과 리사이클(recycle)개념이 점점 더 확산되었다.⁵³⁾

복식을 포함한 예술에서의 복고주의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

48) 정연자, 「모즈룩(Mods Look)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33호, 1996, p. 197.

49) 이선주, 「Post-Modernism의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33.

50) 신명진, op. cit., pp.53-54.

51)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97, p.159.

52) 신명진, op. cit., pp.51-52.

53) Fashion Marketing, 1997년 5월호, pp.70-71.

며, ‘유행’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기억에 대한 향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레트로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는 레트로의 소재가 되는 과거양식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즉, 과거에 유행되어서 대중에게 익숙한 스타일이어야 한다.⁵⁴⁾⁵⁵⁾

3. 복고주의 패션 유형

복고주의는 전통 혹은 과거의 양식을 빌려서 현재 상황으로 변형시키는 ‘과거의 현존’으로 나타난다.⁵⁶⁾ 즉, 과거 복식이 현재의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맞게 변형되어 보여지는 것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잠재되어 있는 회귀의식을 일깨우고 현재의 분열된 자아를 과거를 통해 통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복식의 역사 중에서 보면 어떤 유행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과거 복식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복식의 변천이 바로 이전 시대를 무시하고 전혀 새롭고 파격적인 형태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⁵⁷⁾

선행연구를 통해서 국외 서양복식에 등장한 복고주의 패션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복고주의 패션은⁵⁸⁾ 첫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고대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과거의 복식을 기반으로 한 역사주의(Historicism), 둘째, 전원적이며 목

54) 고현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14.

55) 안선경, 「현대 복식에 나타난 추의 개념」,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96.

56) 권택영, op. cit., p.20.

57) Madde Garland,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p.14.

58) 김미진, op. cit., p.8.

가적인 자연주의(Ecology), 셋째, 이국적이며 토속적인 민속주의(Ethnic), 넷째, 191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20세기 패션 등을 주제로 하여 이미지 차용을 통해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함으로써 과거성을 새롭게 표현하였다.

복고주의 패션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한 유형을 종류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양 복고주의 패션의 개념과 유형

개 념	유 형	선행연구자
•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	• 역사주의 -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 전원주의 • 민속주의	조옥례('92), 박종희('95) 유홍식('97)
• 열린 형식의 표현방식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 역사주의 - 이집트, 그리스, 르네상스, 16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원명심('92) 정홍숙('95)
• '과거성'을 이미지 차용으로 표현 - 의미, 가치 창조	• 역사주의 -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 20세기 패션 • 인체주의 - 바디컨셔스, 누디즘, 미니멀리즘 • 자연주의 - 에콜로지 • 전통문화 및 역사주의 - 에스닉	장희숙('96), 신명진('98), 천지영('00)
• 완전한 반복이 아님 -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 새롭게 창조	• 역사주의적- 히스토리즘(Historicism) 에콜로지(Ecology) 에스닉(Ethnic) • 20세기 패션	김미진('99)

1) 역사주의(Historicism)

고대의상의 특징은 장방형의 천을 그대로 인체에 두르거나 감싸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주름을 강조한 스타일로서 닥트나 솔기, 디자인 라인이 없는 비구도적인 복식형태이다(사진 1, 2).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재현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뽀빠와레(Paul Poiret), 코코 샤넬(Coco Chanel)에 의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사진 3~8)에 대한 역사적인 과거의 요소들을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서 다양한 스타일로 현대 패션에 도입되었다. 중세시대 이후의 특징은 인체미를 인위적으로 강조한 스타일로서 가슴선을 과장시키고 코르셋을 이용하여 가는 허리를 인위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엉덩이 선은 후프나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과장되게 부풀리는 버슬 스타일로서 엉덩이를 부풀린 인체의 인위적인 과장의 표현 역시 현대패션에 수용되어 과장된 실루엣과 장식으로 표현, 재해석되어 유희적인 요소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2) 자연주의(Ecology)

도시생활의 삭막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가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골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났다.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와 애정은 패션에 있어 많은 영감을 주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라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재의 심각성에 현대인들은 자연회귀심리에 초점을 맞추게되었다. 이 목가적인 주제는 소박함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페전트 룩(Peasant Look) 또는 컨츄리 룩(Country Look)으로 나타났다. 잔잔한 꽃무늬나 레이스, 주름 스커트, 장식이 절제된 실루엣이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표현되었다(사진 9).

3) 민속주의(Ethnic)

세계 각 국의 민속복은 복식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또 하나의 자원이다. 현대사회는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 체제 속에 기성복의 출현으로 서양패션이 급속히 전 세계로 보급되어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복식은 국제적 보편주의 아래 획일적인 스타일이 되어서 그 반동으로 표현되는 복고풍은 각 민족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족 지향적 복식으로 나타났다.

현대 산업사회의 동질화,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탈 획일화 현상과 함께 세계패션계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류학적인 각 민족 특유의 민족복식 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반대로 각 민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복식양식을 구미 패션에 도입, 응용하여 새로운 패션 제안과 전통의상을 계승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⁵⁹⁾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복식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민속풍(Ethnic Look)은 현대 패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국적 민속복 재현에 근원은 1960년대 말 히피의 영향으로 인도, 티베트 등의 민속의상이 주목되면서 시작되었다.⁶⁰⁾

민속복이 본격적으로 패션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로써 이브 생로랑이 페전트 풍과 일본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가 포클로어를 컬렉션의 테마로 삼으면서 비롯되었다.⁶¹⁾

민속복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서양에서 볼 때 이국적인 느낌이 가장 강렬한 동양복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사진 10)으로 확립

59) 김민자, 「한국 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1990. 6), P.21.

60) 박종희, op. cit., p.11.

61)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Vol.2」, 서울: 도서출판 시대, 1988, p.102.

되었으며 자연 친화적인 원시성을 느낄 수 있는 아프리카 복식 또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다. 이외에도 많은 고유의 민속복의 자연스러움이 인위적이고 틀에 짜 맞추어진 듯이 구조적인 형의 서양복식에 새로운 디자인 발상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4) 20세기 패션⁶²⁾⁶³⁾⁶⁴⁾⁶⁵⁾⁶⁶⁾

1910년대에는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의 영향기를 지나 기하학적이고 유선형적인 특징을 가지는 아르데코(Art Deco)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1908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복식에서 이 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한 디자이너인 뽀 뿌와레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뽀 뿌와레의 영향 아래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Empire Tunic Style), 동양풍에서 영향을 받아 바디스에서 무릎까지 부풀리고 그 아래로 좁아진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힙 부분이 부풀고 아랫단이 좁은 역삼각형 모양의 페그탑 스커트(Peg-top Skirt), 힙 부분은 풍성하고 아랫단은 주름을 잡은 하렘 스타일(Harem Style), 튜닉 도련에 철사를 넣어 전 등갓처럼 둥글게 퍼지게 하고 아래는 발목 길이의 훌쭉하게 좁은 스커트를 입는 미나레 스타일(Minaret Style)이 나타났다. 또한, 우아하고도 활동에 편리한 스타일로 짧은 상의나 긴 코트의 가장자리에 모피나 트리밍을 대는 기모노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동방풍의 영향으로는 터번, 선 장식, 깃털장식, 구슬과 자수 등이 유행하였다(사진 11).

62)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9.

63)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9.

64) David Bond저,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2000년 개정판.

65) 신상옥, 「서양 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2.

66) 백영자, 유효순, 「서양 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89.

1920년대에는 1914년에서 1918년까지 계속된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르 데코 예술사조와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에 의한 1920년대의 기능주의는 복식에도 현저하게 나타나서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길이로 짧아지게 되었으며 허리선은 허리 밑으로 내려가게 된 튜블러(tubular)한 스타일의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로 정립되었으며 인체를 코르셋에서 해방시켰다. 1920년 경까지는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직선적인 실루엣이 유행하였으며 가슴과 hips를 강조하지 않고 허리를 조르지 않는 실루엣으로 남장을 모방한 가르송느 스타일(Garçonne Style)이 1924년까지 유행하였다<사진 12>.

전반적으로 젊음을 추구하는 젊은이 위주의 유행으로 소매가 없고, 가슴이 파이고, 불규칙한 스커트 길이 등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인 플래퍼 룩(Flapper Look)이 등장하였고, 투탄카멘 묘의 발굴로 고대 이집트의 영향이 대중화되어, 이집트 스타일의 자수와 모티브가 사용되고, 긴 귀걸이, 뱀 모양의 목걸이와 팔찌, 팔 위쪽에 차는 팔찌를 착용하였다.

1930년대에는 1929년 세계적 대공황이 일어나고 전쟁 후 세계경제에 대파탄이 일어났으며,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여자다움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 스커트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여 1938년 경까지 롱스커트시대가 계속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날씬한 실루엣으로 허리선이 부활된 슬림 앤 롱(Slim & Long)실루엣의 시대가 되었다<사진13>. 일부 상류계층에서는 스커트에 바이어스 컷을 이용하거나 이브닝 드레스에서 극단적으로 등을 노출한 홀터 네크라인과 데콜레테(Décolleté)가 성행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 영화배우들의 이미지, 모습, 의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의 테일러드 수트와 코트, 트렌치 코트, 어두운 안경, 베레모, 창이 기울어진 모자 등을 착용하여 유행되었으며,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는 매혹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묘사하여 '글래머러스'란

말을 사용, 성적이며 매혹적인 여성스러움으로 인기를 끌었다. 1930년대 말에는 패드를 넣은 각진 어깨에 허리는 벨트로 꼭 조이고 무릎길이의 스커트가 주류를 이루는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이 유행하였다.

1940년대에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밀리터리 룩이 전쟁이 끝난 1946년까지 계속되어 전 세계 여성 복식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각진 어깨와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사진 14)은 실용적인 기능복으로 되었으며, 모자가 복식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쟁 중의 실루엣에 비하면 매우 여성적인 볼드 룩(Bold Look)으로 변화하였는데 허리선을 의식한 실루엣으로 허리가 좁아졌으며 넓은 어깨와 상의, 포켓 등으로 X자형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쟁 후 냉전체제로 적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경제의 발전과 자본 축적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런 경제적인 호조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향으로 패션의 산업화를 촉진시켰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발표한 뉴 룩(New Look)의 유행이 절정을 이루어 둥근 어깨, 가는 허리, 활짝 펼쳐지면서 길어진 스커트로 새로운 실루엣을 보여주며 그 동안의 딱딱했던 밀리터리 룩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표현하였으며,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의 하이 웨이스트를 즐겨 사용하였다. 1950년대는 수많은 라인(line)의 시대라고 한다. 라인으로 인한 기본적인 실루엣의 변화는 허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슬림 웨이스트, 하이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의 순서로 경과하면서 복식사적 회전을 보여주었다.

1950년부터 1952년에는 주로 직선적이고 날씬한 실루엣이 성행하였다. 무릎 길이의 타이트 스커트에 벨트로 허리를 매거나 또는 그대로 여유 있게 둔 스타일로 디올의 버티컬 라인, 오벌 라인 등과 발렌시아가의 클래식 라인들이다.

그 외에 다음은 좀더 여성적인 분위기의 어깨선을 둥글게 하고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린 듯한 튜립라인과 H라인, A라인, Y라인, F라인, 마그넷 라인 등을 발표하였다. 1957년 이후 유행된 샤넬의 sack 드레스(Sack Dress)는 자연스럽고 허리선이 강조되지 않은 실루엣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여성복식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바지를 일상복으로 착용하게 되어 캐주얼웨어에서부터 포멀한 수트까지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다 <사진 15>.

1960년대에는 기성복 산업의 발달로 모더니즘 현상이 나타났는데, 1960년대 중엽에 팝 아트(Pop Art), 옵 아트(Op Art), 미니멀리즘(Minimalism)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젊은 층 사이에 크게 성행하여 복식에서도 추상적인 무늬로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준 팝 아트, 몬드리안 룩, 옵티컬 패턴 등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의 패션은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1920년대를 지배했던 샤넬의 수트나 플레퍼 스타일, 가르송느 스타일 등이 다시 유행하였다. 1963년부터 1964년에는 내추럴 룩이 유행하여 작업복, 스포츠 웨어 감각을 살린 스포티브 룩이 정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965년 영국의 메리 퀀트(Mary Quant)가 미니 스커트를 출현시켜 세계 전역에 선풍을 일으켰다. 또한 남녀복장이 거의 동일한 모양인 유니섹스란 말이 생겨났다. 블루진이 남녀공용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여 현대에도 계속 애용되고 있다.

1966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합성 섬유, 유리, 금속, 인조가죽, 시스루 패브릭이 나오는 등 의복 재료가 다양해졌다. 1967년 앙드레 꾸레쥬(André Courrèges)는 뉴 바디를 발표하여 인체에 직접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알루미늄, 금속 등을 사용한 미래파 디자인을 발표하였고, 1966년 파코 라반느(Paco Rabanne)는 얇은 원반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디스크 드레스를 발표하였다. 인간이 우주탐험을 시작하여 우주복이 유행하였고 미·소

의 냉전이 길어짐에 따라 밀리터리 룩도 다시 등장하였다. 또한, 월남전, 인종문제, 성도덕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하여 기존 가치 체계와 젊은이들의 가치 체계사이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시기로, 히피족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흑인패션이 백인 패션에서 독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위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의 두 방향이 패션의 주류를 이루었다<사진 16>.

1970년대에는 미래지향적인 패션과 민속적 패션이 성행하였다. 또한 검은색의 진(Jean)차림이 계속 유행하였고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이 일반화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1970년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과거의 향수에 의한 전통적인 형태로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1972년과 1973년은 복고풍의 로맨틱 무드가 부활하여 스커트 길이가 길어지고 허리선이 제 위치로 돌아와서 강조되었다.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데서 과거 1920, 1930, 1940년대에 유행했던 의상들을 재현시켰다.

1974-1975년에는 레이어드 룩과 루우즈 룩, 스포티브 룩 등이 유행하였으며, 스커트는 미니 시대를 지나 무릎 아래로 정착되었다. 또한 독특한 동양 스타일이 가미된 오리엔탈 룩이 인기를 모아서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로맨틱한 무드를 민속조로 계속 발표하였다. 1976-1977년에는 다카다 켄조(Takada Kenzo)가 헐렁해서 커 보이는 빅 룩을 발표하였고, 입기 편한 옷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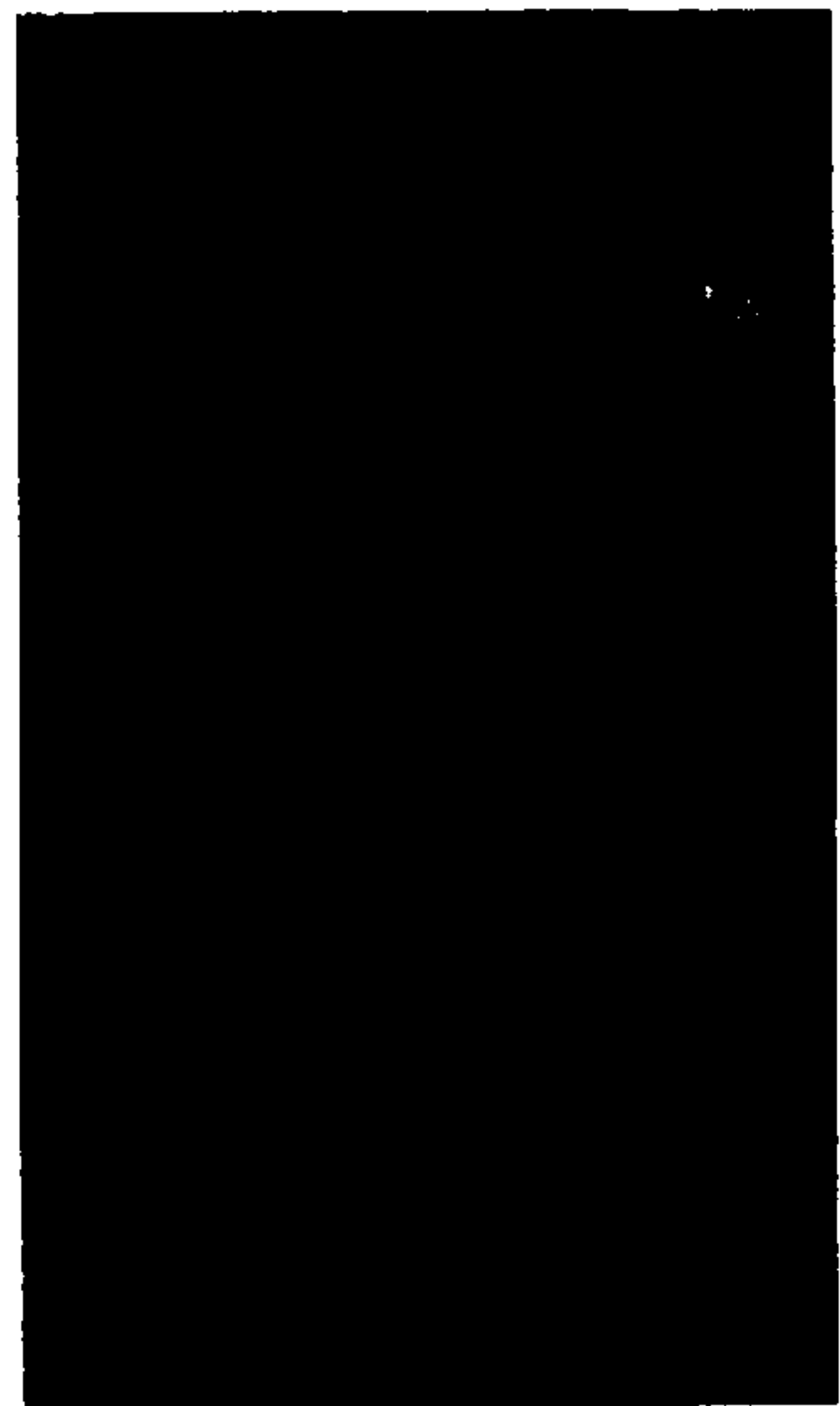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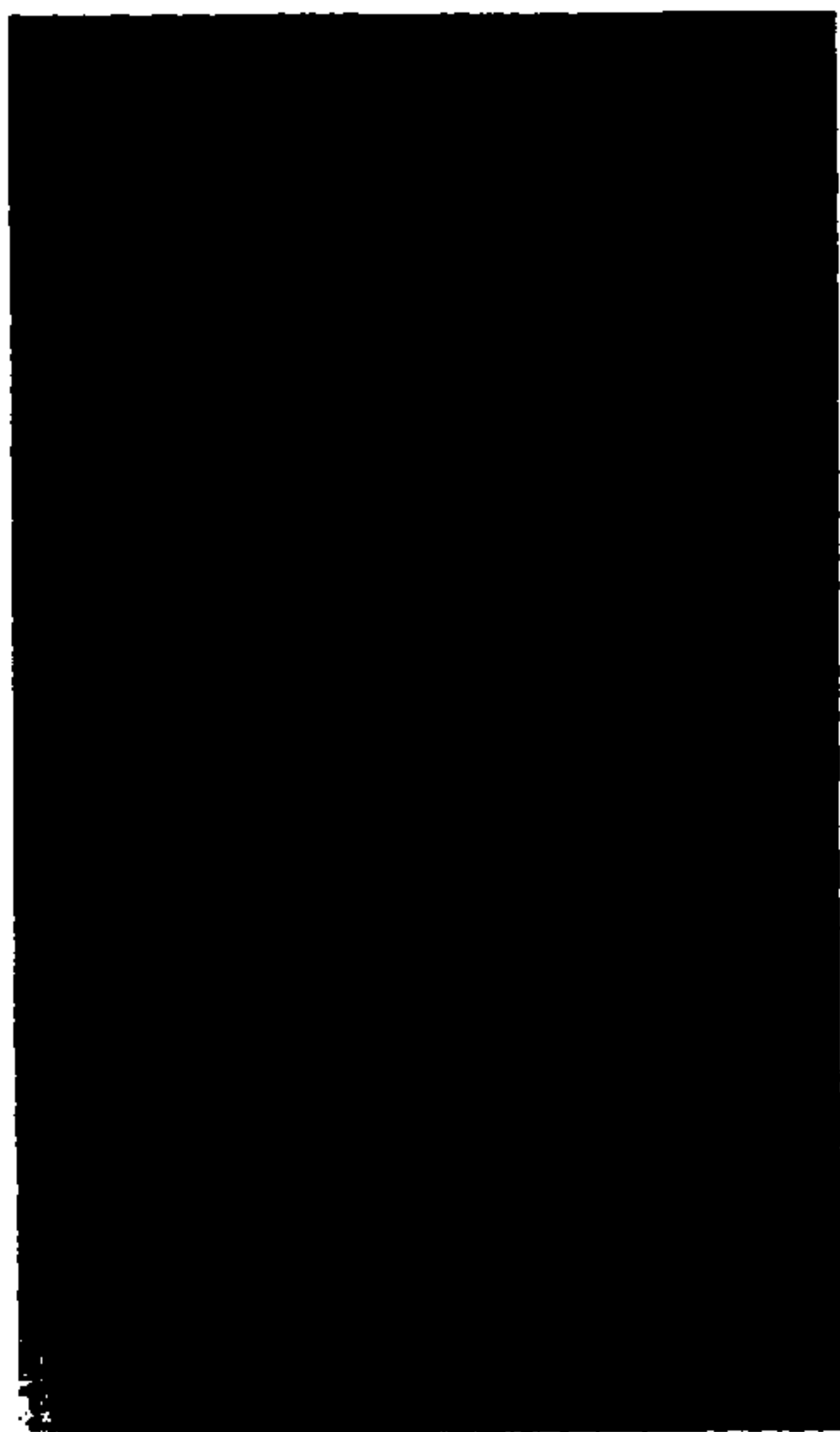
1978년 여름 복고풍의 장식적인 로맨틱 패션이 대두하여 러플과 레이스가 달린 티어드 스커트가 나타났고, 가을, 겨울에는 여성의 신체선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패드를 넣은 어깨와 가는 허리, 부풀린 힙, 좁은 스커트 폭 등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테일러드 룩이 1979년 봄 파리 컬렉션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1940년대와 1950년대 의상의 재현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보였다.

1979년 영국에서 시작된 펑크(punk)가 복식에 도입되어 1950년대를 연상시키는 펑크 모드를 발표하였다. 또한 몸의 일부를 대담하게 노출하거나 얇고 투명한 소재를 사용한 시스루, 몸에 타이트하게 입어 몸의 곡선미를 내보이는 피팅 타입이 유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복고풍이 강하게 나타나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밀리터리 룩과 헐리우드 룩이 재현된 네오 클래식 스타일이 나타났다. 즉, 1970년대에는 레이어드 룩이 유행하였고, 후반부는 레이어드 룩이 계속 성행하면서 전원풍의 페전트 룩이나 민속풍의 히피 룩, 펑크 룩, 밀리터리 룩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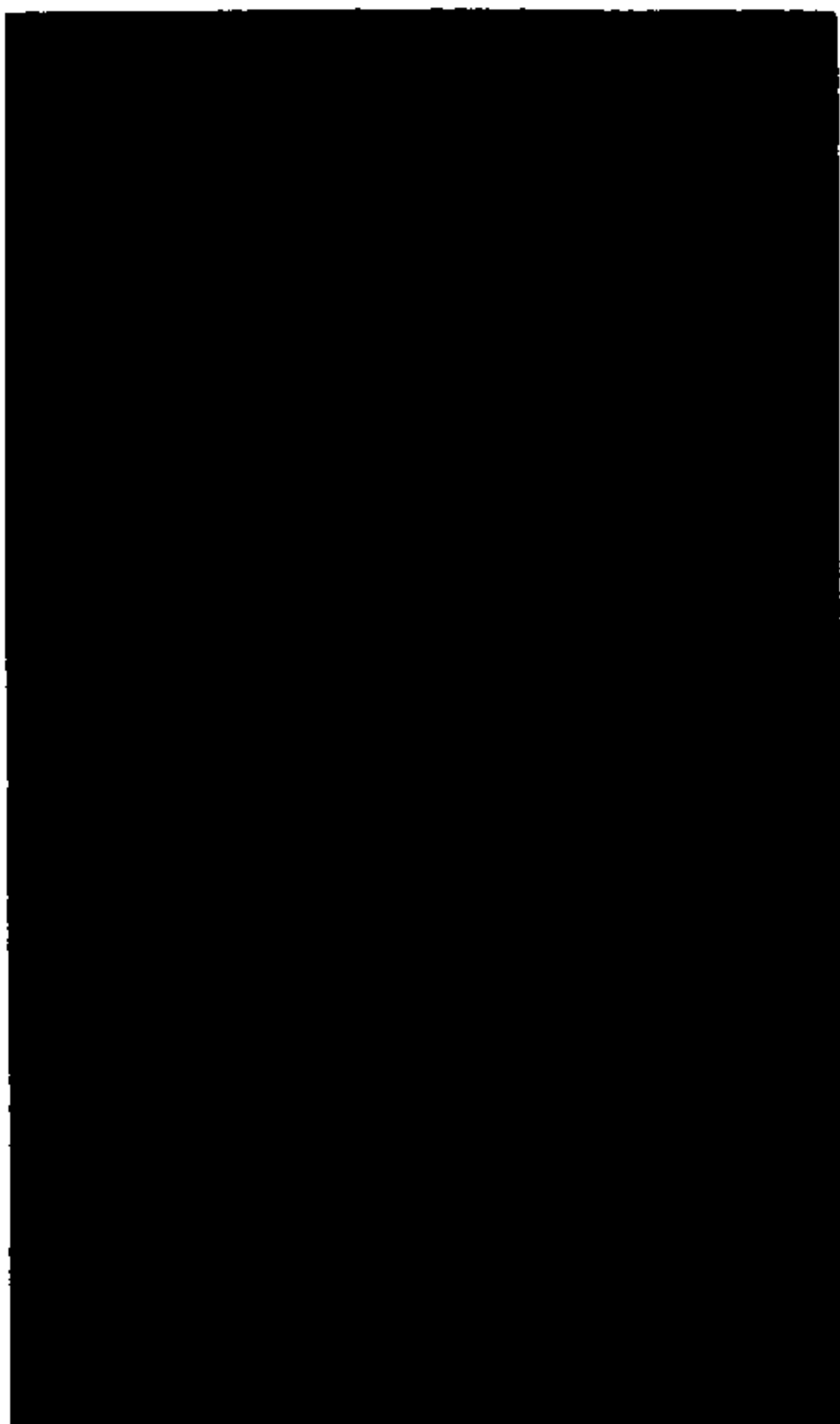
1980년대의 패션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스타일과 과거에의 향수를 자아내는 것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능제일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 획일주의의 반동으로 인간의 감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의식 변화인 뉴 웨이브의 일반 예술이 싹트고 복식에서도 뉴 웨이브 패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뉴 웨이브 패션은 펑크, 포스트모던, 네오 모더니즘, 앤드로지너스 등의 양식으로 구분되어진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녀 공용의 의복으로 표현되며, 여성복의 매니쉬 현상과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 등으로 나타난다.

유명 디자이너들은 바로크나 19세기 말의 화려하고 과장된 스타일, 르네상스와 로코코 시대의 디자인, 색상, 디테일 등에서 영감을 받아 지적이고 문화적인 감각에서 복고풍을 시도하였다. 벨벳, 실크, 레이스, 망사, 털, 자수, 러플, 구슬, 공작 깃털, 스팅글 등을 사용하여 환상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여성적이며 활동적인 생동감 있는 캐주얼 스포티 스타일 즉,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다. 또한 미래형 스타일이 나타나 전위적이고 대담한 그래픽적 요소를 이용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에도 다양한 스타일로 각자의 개성을 중요시하였다<사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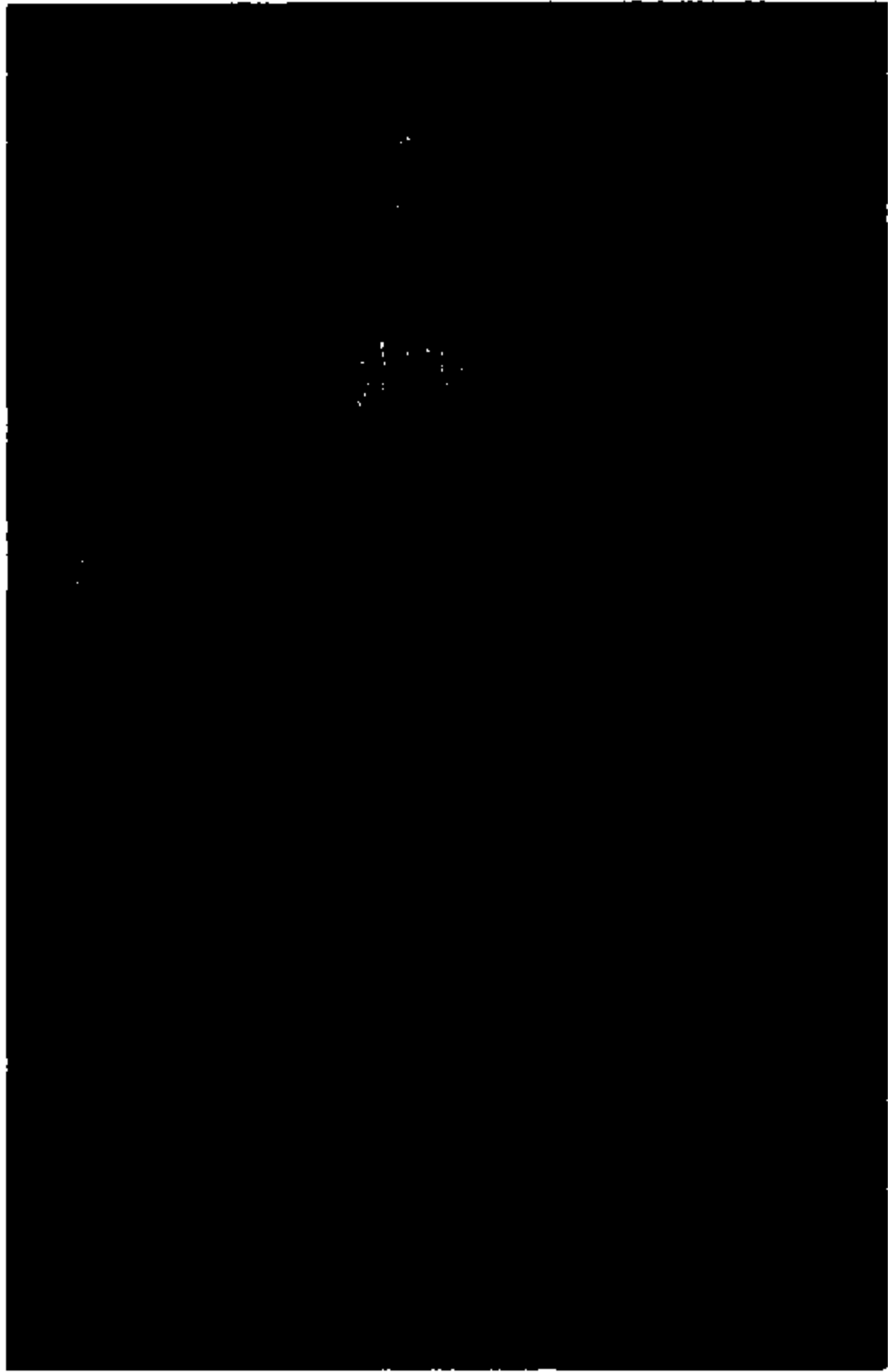
<사진 1> 고대 이집트 복식 <사진 2> 고대 그리스 복식 <사진 3> 중세 복식



<사진 4> 르네상스 복식



<사진 5> 바로크 복식



<사진 6> 로코코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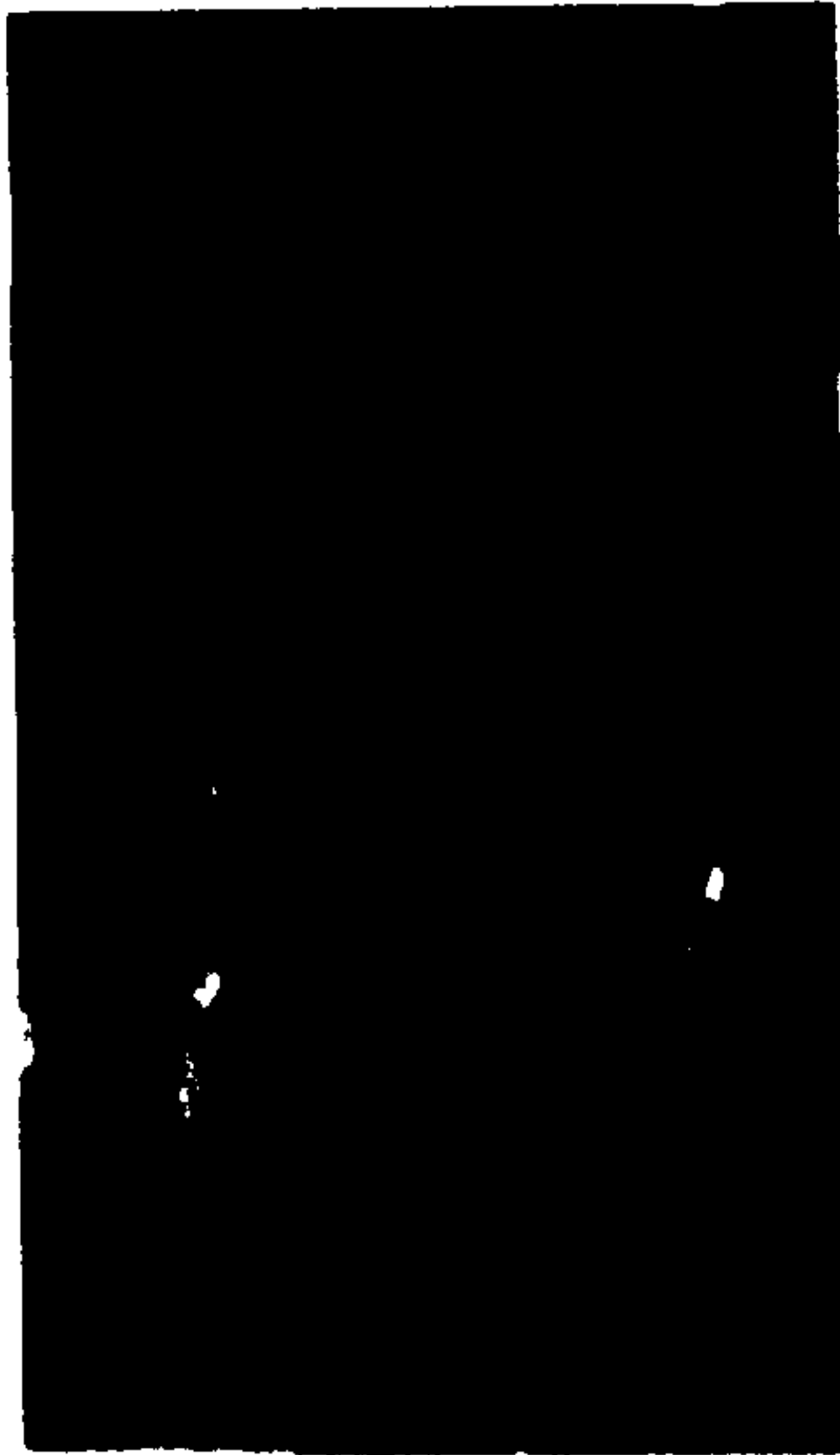
<사진 7> 엠파이어 스타일



<사진 8> 버슬 스타일



<사진 9> 페전트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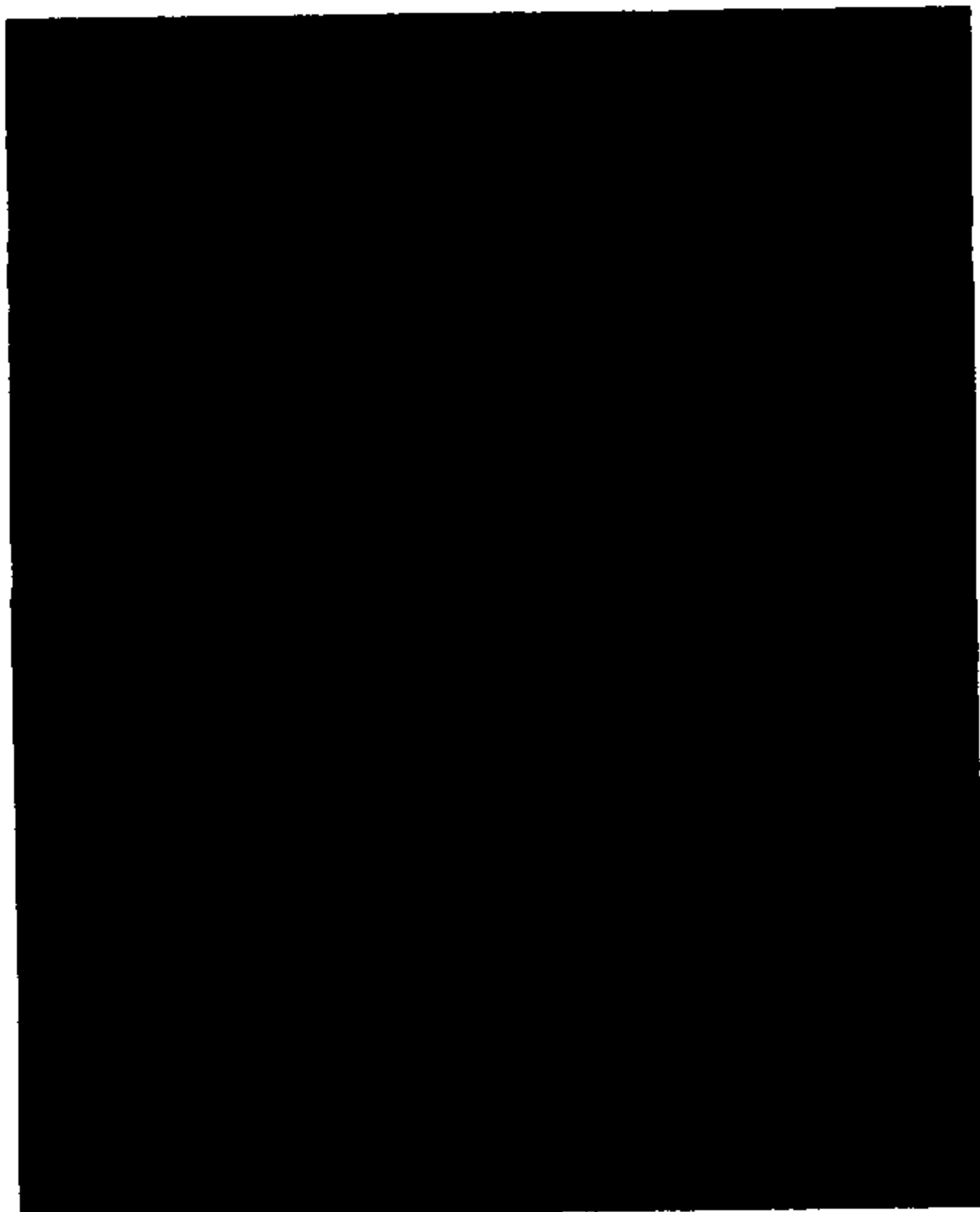
<사진 10> India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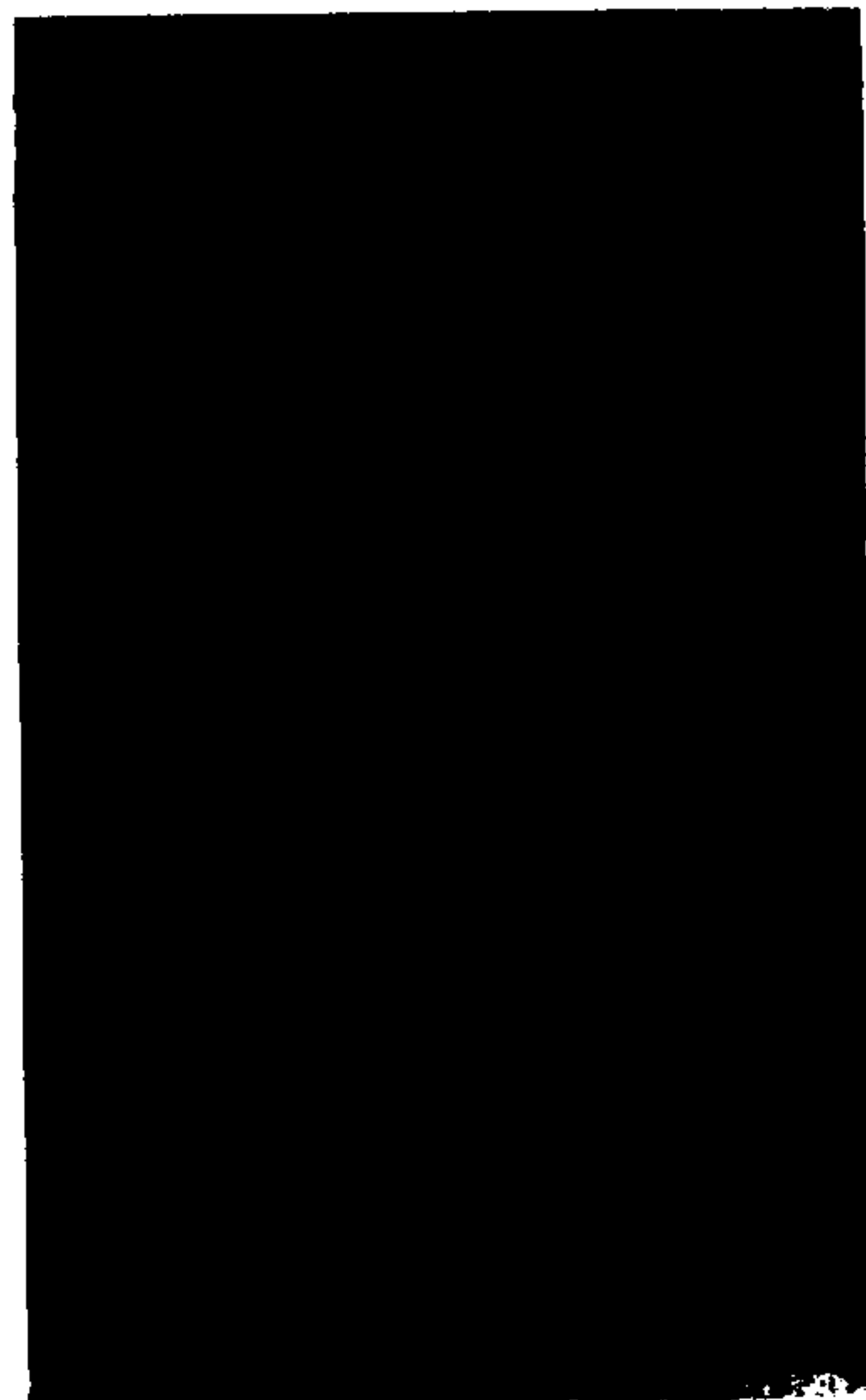
<사진 11> 1910년대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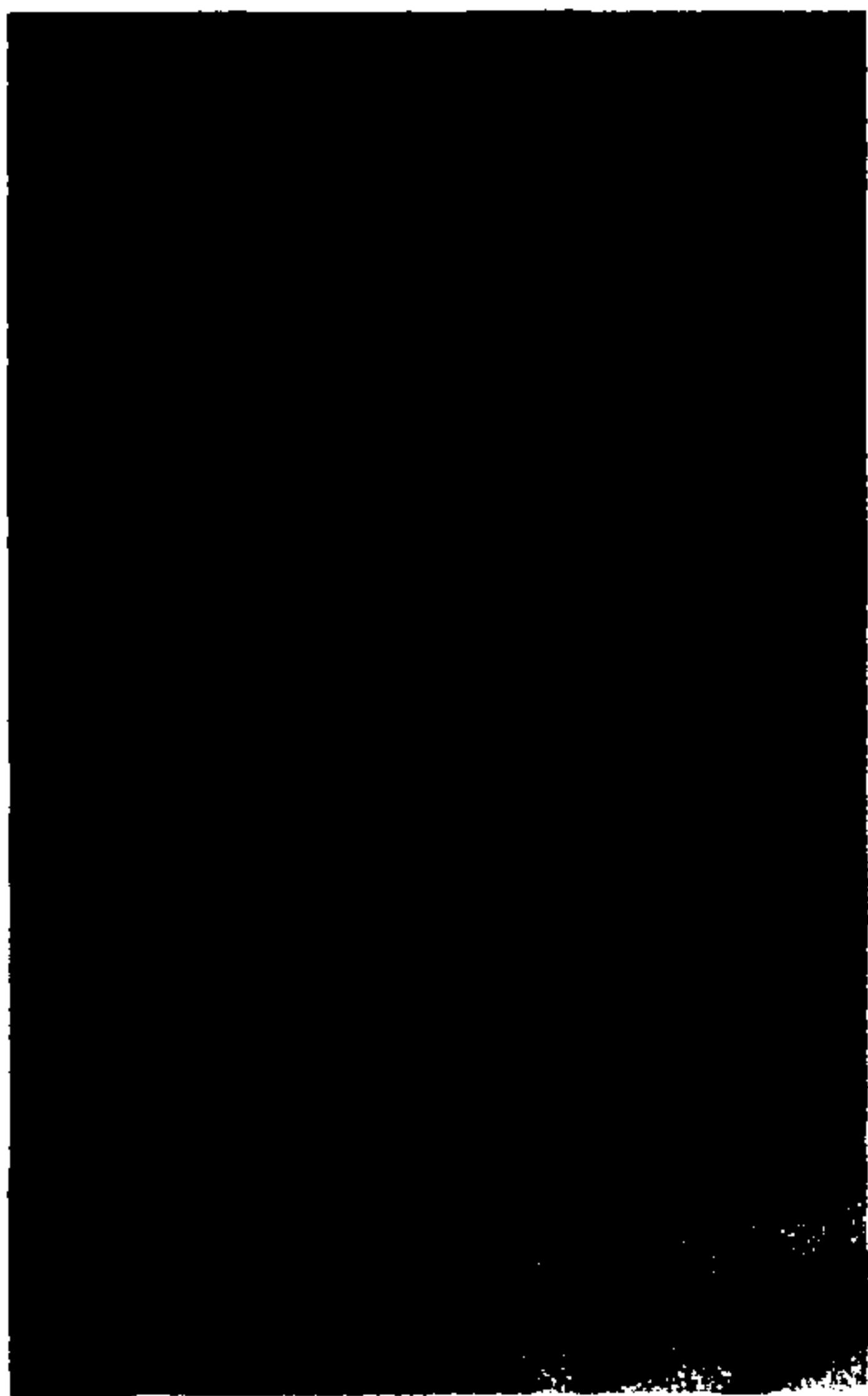
<사진 12> 1920년대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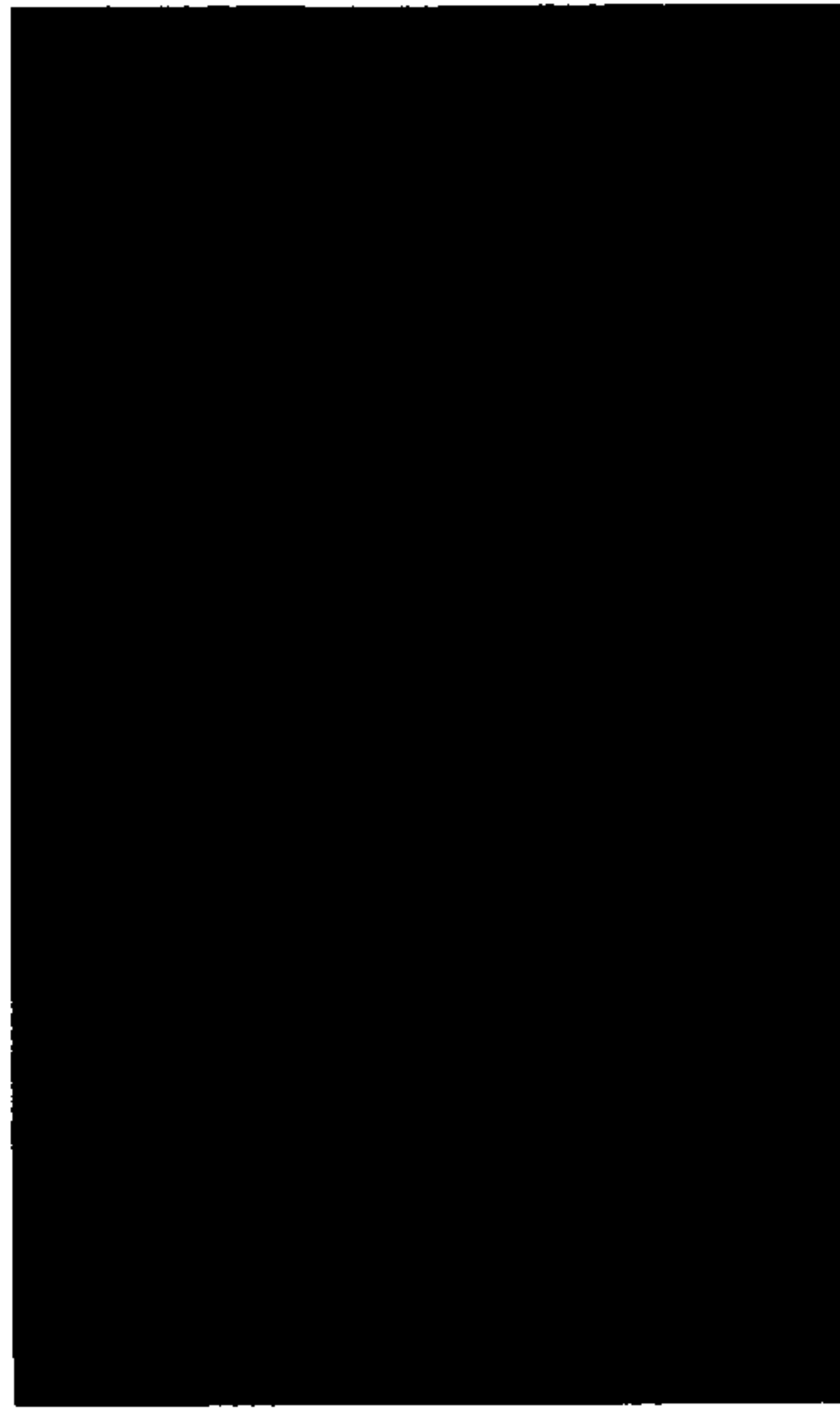
<사진 13> 1930년대 스타일



<사진 14> 1940년대 스타일



<사진 15> 1950년대 스타일



<사진 16> 1960년대 스타일



<사진 17> 1970년대 스타일



<사진 18> 1980년대 스타일

Ⅲ.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

1. 국내 패션의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

1990년대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세계의 국면은 변화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21세기를 향해 접근해갔다. 소련에 의해 거의 반세기에 걸쳐 지배당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했고 공산주의자가 장악하던 동유럽은 무너졌다.⁶⁷⁾ 1990년 10월 동·서로 나뉘어 있던 독일이 통일되었다.⁶⁸⁾

1990년대는 ‘환경의 연대’라고 한다. 지구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하고자 하는 운동은 이제 사회적,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세계 모든 대륙을 사막화시키려 하고 이같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환경문제를 기존의 국가안보나 경제이익보다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⁶⁹⁾

1990년대의 패션트렌드는 1980년대 후반에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 중의 하나인 “에콜로지(ecology)” 및 “자연주의(naturalism)”에 대한 관심으로서 에

67) Elane Feldman, 「Fashions of a Decade : The 1990s」, B. T. Batsford Ltd • London, 1992, p.5., 류순경, op. cit., p.11에서 재인용.

68)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방송연감」, 1991, p.17.

69) 전소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ECOLOGY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8.

폴로지 경향은 일시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디자이너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와 디자이너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경향으로 일시적인 경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⁷⁰⁾ 이러한 경향의 구체적인 표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재활용품의 사용과 ‘그런지 패션(Grunge Fashion)’같은 것들이다.

또 한가지의 패션트렌드로서 재미있는 현상으로는 패션의 빠른 변화 속에서 과거 복식 특히 20세기 패션을 계속해서 반영한 ‘레트로(Retro)풍’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⁷¹⁾

1990년대 중반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최첨단 미디어 역할을 한 인터넷의 열풍은 정보화시대가 개화했음을 실감케 했으며,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러 민족 간의 대립이 화해와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⁷²⁾

1990년대는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중시하려는 욕구가 강조되고 패션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층 고조되는 시대였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자신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거나 생활에 불편 없는 의복 및 풍성하고 착용하기에 편리한 의복 등으로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의복에 의해 충족하려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⁷³⁾

1990년대 말에는 영화·음악·미술·패션·출판·사이버 공간 등 문화 전반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는 기치 아래 단순성과 안정성

70) 전소영, op. cit., p.24.

71) 유홍식, 「1990년대 패션에 재현된 “헵번 룩”에 관한 연구」, 상지전문대논문집 제16집, 1997, pp.219-220.

72) 류순경,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2.

73) 허갑섬, 「복식문화와 복장사」, 서울: 이즘, 1998, p.266.

을 강조하는 고전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을 보였다.⁷⁴⁾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암울했던 정치시기를 거쳐 1990년대에는 소비와 향락,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나타났는데,⁷⁵⁾ 특히 자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풍요 속에 성장한 신세대 문화가 출현을 하였다.⁷⁶⁾

1990년대는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로, 1991년에는 서울방송국이 개국하였고, 1995년에는 케이블 방송이 시작되어 늘어난 대중매체에 의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스스로 재창조하게 되었다. 경제 생활의 안정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패션을 통해 마음껏 표현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대전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은 국내 패션뿐만 아니라 국외 패션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패션은 점차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패션산업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다양화되고 발전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국내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⁷⁷⁾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해외 수입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해외 의류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수입의류에 의해 국외의 패션경향이 국내패션에 직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해외 브랜드 선호와 의복에 의한 과소비 풍조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⁷⁸⁾

74) 경향신문(해외), 「[월드 프리즘] 세기말의 '향수' 고전주의 열풍」, 1999년 3월 8일, 신명진, op. cit., p.15에서 재인용.

75) 한완상 외, 「한국 사회학」, 서울: 민음사, 1996, pp.46-47.

76) 이은영, 「패션 마케팅」, 서울: 교문사, 1999, p.56.

77) 이호정, 「패션 마케팅&패션 트렌드 분석」, 교학연구사, 1996, p.152.

2) 국외 패션 경향

1990년대에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패션도 동시대에 많은 여러 표현으로 다양성이 지속되었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은 사고나 생활에 있어 단순하며 긍정적인 최신의 낙천주의로 귀환하려는 의지와 자연, 예술, 문화, 전통 등의 감정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됨으로써 복고주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통된 현상으로 10대의 돌풍으로 '대중'이라는 개념의 주체가 20대 초반으로 옮겨지고, 스포츠의 대중화로 스포츠 캐주얼의 붐이 일어났다.⁷⁹⁾

1990년대 초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공감대 아래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자연주의 경향이 세계를 강타하여, 92/93년 F/W는 과거가 미래를 위해 길잡이가 되어주는 부활을 위한 계절로, 오래되고 고전적인 것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 재창조가 되었다.⁸⁰⁾

21세기로 나아감에 따라 자기표현이 보편적인 양식으로 예술로부터 영향을 받고 가정과 가족은 전통과 가치기준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순수함이나 자연스러움은 고차원적인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지구환경과 더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기술과 자연의 융화로 세계화를 향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자연주의 무드에 또 다른

78) 최해주, 「I.M.F. 체제 직전의 국내 복식에 표현된 가치관과 미의식 고찰」, 1999, 복식학회지 48호, pp.89-91.

79)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39.

80) 조기정, 「'92 S/S Paris Prêt-à-Porter Collection」, 월간 「멋」, 동아일보사, 1991년 11월

무드의 변화 시도로 등장한 트래디셔널 클래식 라인(Traditional classic line)이 공존하여 복고풍, 민속의상의 영향을 받아 장식성이 부각되었는데 브레이드, 레이스, 아플리케, 수예 등이 현대 감각에 맞게 사용되고, 프릴, 플라운스가 많이 표현되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플리츠가 새로운 테마로 부각이 되어 나타났다.⁸¹⁾

2. 국내 복고주의 패션 유형

1990년대 국내에서 나타난 복고주의 패션을 고찰한 결과, 국내 복고주의 개념과 복고주의 패션 유형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즉, 복고주의는 선행양식의 모방을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함께 재조합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다시 창조하여 새롭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복고주의 개념에서의 모방개념은 선행양식을 모방하여 재창조하는 것으로 복고주의 유형으로는 서양 복식을 기반으로 스타일을 응용한 ‘역사주의’로 볼 수 있으며, 패러디 개념은 재조합하고 은유, 혼합하여 시대정신이나 사상과 결합하는 것으로, 소재나 색상 등으로 소박하고 편안한 자연으로의 회귀를 느낄 수 있는 ‘자연주의’와 고유 전통복식을 응용하여 현대 복식에 표현하거나 다른 나라의 민속복이 표현된 ‘민속주의’로 나타나며, 유행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일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유행 스타일이 다시 현대에 재등장하는 ‘20세기 패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으로 나타나는 복고주의란, 옛것에 대한 새로운 창조현상이다.

그러므로 복고주의 개념과의 연관성에 의해 ‘역사주의’, ‘자연주의’, ‘민속주

81) 조옥례, 「복고풍의 패션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논문집, 11(“92. 10), p.196.

의', '20세기 패션' 등으로 나누어 국내 패션에 표현된 복고주의를 국내 패션 잡지에 나타난 디자이너 작품 위주로 살펴보았다.

[표 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개념과 유형

	내 용	
개념	• 예전에 나왔던 표현들을 현대에 다시 재창조하여 새롭게 표현하는 것 • 모방개념 ⇒ 역사주의 • 패러디 개념 ⇒ 자연주의, 민속주의 • 유행개념 ⇒ 20세기 패션	
유형	역사주의 (Historicism)	•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 복식의 응용
	자연주의 (Ecology)	• 전원적이며 목가적인 복식 - 페전트 룩(Peasant Look), 컨트리룩(Country Look) • 소재, 색상, 실루엣 등이 소박한 디자인
	민속주의 (Ethnic)	• 고유 전통 문화 및 복식의 응용과 제3세계 민속복의 응용 • 이국적인 민속복 - 에스닉 룩, 오리엔탈리즘
	20세기 패션 (20th century fashion)	• 1910년부터 1980년대에 유행하였던 스타일 재현

1) 역사주의

역사주의에서 회귀경향은 과거 역사와 전통양식의 모티브를 현대에 가져와 상호 절충시켜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자각적 추세를 가지고 단순하게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⁸²⁾

복식에 있어 역사주의는 주로 재현이나 응용의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표현은 고대 이집트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주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스타일 등이 많이 표현이 되었는데, 실루엣, 디테일, 문양 등이 현대 복식에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2) 자연주의(에콜로지)

현대는 물질적 풍요와 문화의 즐거움이 풍만한 사회가 되었지만, 인간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징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예술·문화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가치를 부여해 온 무형의 가치들 - 사회의 일체감,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 자연에 대한 사랑 - 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는 곧 '자연주의'의 반영으로 나타난다.⁸²⁾

16세기 영국에서는 '꽃과 식물을 입는다'고 표현될 정도로 여성복의 거의 모든 부분을 꽃과 자연물의 아플리케로 장식하였는데,⁸⁴⁾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에콜로지는 생태학을 뜻하는 용어로서 오염되어 가는 지구 환경을 보존, 훼손되지 않은 자연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인들의 바람을 의복을 통하여 강한 메시지로 만들어 낸 것이다.⁸⁵⁾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의 영향으로 자연물을 복식에 도입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자연을 복식으로 이동

8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21.

83)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ural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0.

84) 김민자·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학회지 제21호, 1993, p.199.

85) 양윤정, op. cit., p.51.

한 것은 모든 종류의 자연 즉, 해양식물, 나무, 새, 꽃, 나비 등을 의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콜로지는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귀본능, 인간성 회복이라는 메시지와 에콜로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으로 확산, 발전되었는데,⁸⁶⁾ 이는 현대인의 상실된 본질을 찾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었다.⁸⁷⁾

동물의 자연 모티브나 모양, 열대의 이국 풍물을 담은 트로피컬 패턴과 디자인, 조개 등의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직접표현방법과 자연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핸드 메이드의 선호, 천연의 생지와 에크루(ecru)계열의 색 사용,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활용 등의 간접적 표현 방법으로 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국내 패션에서 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때에는 꽃무늬 프린트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표현되고 꽃무늬 프린트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주로 트로피컬 프린트가 많이 나타났으며, 동물 무늬 프린트도 많이 유행되었던 테마이기도 하다.

3) 민속주의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이 강조된다. 이로 인하여, 모더니즘의 엘리트 의식에 억눌려 그 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도외시되어졌던 서양이외의 제3세계권 국가들 -미래를 개척해 나갈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동양지역,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86)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4.

87)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2.

비개척지의 소수민족,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의 소수민족-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국취향은 자기 나라나 민족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거나, 그것을 통해 예술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⁸⁸⁾ 이는 주로 서구 패션에 제3세계권 국가들의 다양한 종류의 민속풍(Ethnic Look)을 모티브로 한⁸⁹⁾ ‘민속의상’ 또는 ‘민족의상’의 특징과 요소들이 표현된 복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속의상은 그 지역이나 민족고유의 풍습, 풍속, 모양, 소재, 기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원시적 성격을 띠는 아프리카나 문명에서 떨어진 오지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중국·일본 등의 동양적 요소(Orientalism), 유럽 각 국 및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지역,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이국적인 경향은 동·서양의 문화가 접목되고 혼합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며, 외면당한 인간의 감상적인 측면을 회복시키고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⁰⁾

1990년대 국내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을 현대 복식과 융합시켜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와 구분하여 ‘한국 전통 복식’으로 구분하여 따로 살펴보았다.

(1) 한국 전통 복식

국내 디자이너들은 현대 복식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의상과 현대 서양복식

88)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7, p.2657.

89) 김희균,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30-31.

90) 송명진·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제18호, 1992, pp.294-295.

을 절충한 특유의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이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소재, 문양, 디테일, 실루엣, 모티브 등을 통해 한국적인 복고주의 패션을 표현하였다.

소재의 경우, 모시, 삼베, 광목 등의 소박한 질감의 한국적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한복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을 하여 한국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2) 기타 민속복식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소식과 고유의 문화나 전통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세계나 아시아 등지의 전통 민속의상이나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새로운 복식의 표현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민속적인 표현이 현대 패션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중국풍이 가장 많이 표현되었는데, 소재나 색상, 문양 등에서 전형적인 중국풍이 자주 사용되었다.

일본풍은 서양에서는 비교적 많이 등장한 편이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밖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디언, 아프리카 등의 민속풍도 등장하였다.

4) 20세기 패션

유행은 사회 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며,⁹¹⁾ 사람들은 싫어하거나 좋아하거

91) Maggi Pexton Murray, 「Changing style in fashion」, N. Y: Fairchild

나 유행을 따르게 된다.⁹²⁾ 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므로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20세기 유행의 역사에는 주기성이 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 사회 안에서 여러 스타일의 유행주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실루엣도 한 가지에만 고정되지 않고 있다.⁹³⁾

오늘날 패션에 있어서의 탈바꿈 현상은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며, 패션 경향은 그 주기가 매우 짧고 유행을 좇는 스타일보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위주로 독특한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특별한 유행 스타일이 없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스트리트 패션의 대두, 패션산업의 번창,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함 등으로 한 가지 뚜렷한 스타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이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⁹⁴⁾

그러므로 복고풍에도 한가지 시대나 스타일이 아닌, 한 해에도 여러 시대의 스타일이 다시 반복되거나 이미지가 도입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역사주의보다는 20세기 패션에 대한 복고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1940년대에 나타났던ミリ터리 룩이 미래적인 감각과 절충되어서 젊은층의 캐주얼웨어나, 스포츠웨어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1950년대, 1960년대의 헵번 스타일, 미니멀리즘 등은 많은 관심과 수용으로 거의 해마다 표현되었으며, 1970년대나 1980년대의 스타일은 '촌티 패션'으로 조금은

Pucblications, 1989, p.4.

92) Angela Royston, 「The Passion for Fashion」, Limpsfied: Dragon's World Ltd., 1988.

93) AnnaLee Gold, 「90 Years of fashion」, N. Y: Fairchild Fashion Group, 1991, pp.116-120.

94) 손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p.62-69.

촌스러우면서도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복식으로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국내 패션에서 다양한 복고주의의 유형이 중요한 주제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역사주의의 경우 러플, 크라바트, 리본 등이 현대복식에 디테일로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과거에 대한 복고주의가 표현되었다.

자연주의는 화려한 색상과 싱그러운 꽃무늬 프린트, 자연스럽고 편안한 실루엣 등에 의해 자연회귀에 대한 표현이 나타났다.

민속주의는 한국적인 치마형태를 노방의 소재로 전통 한복의 디테일과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20세기 패션은 1960년대 스타일로서 모던한 미니 원피스에서 복고주의 패션이 표현되었다.

[표 4]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

형태 유형	디자인	형태 유형	디자인
역사주의		민속주의	
	바로크 복식 응용 비·아트, 1998, 9		한국적인 실루엣 이영희, 1995, 12
자연주의		20세기 패션	
	꽃무늬 프린트 오브제, 1994, 5		1960년대 스타일 예고, 1996, 5

3.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 비교

현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국제 사회가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패션 분야 또한 거의 동시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패션 트렌드의 경우 세계가 공통된 흐름 속에서 각국의 개성을 나타나게 되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90년대의 국내·외의 복고주의 패션 경향을 일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국내 패션은 국내 여성잡지의 작품 사진을 기준으로 하였고, 국외 패션은 서양복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⁹⁵⁾⁹⁶⁾⁹⁷⁾⁹⁸⁾⁹⁹⁾ 의하였다.

1990년대의 복고주의 패션을 살펴보면, 국내·외 모두 역사주의, 자연주의, 민속주의, 20세기 패션이 함께 표현되었다.

역사주의와 20세기 패션은 국내·외 모두에서 거의 매년 등장하여 복고주의 패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속주의가 많이 표현되었고, 네 가지 유형 중 자연주의가 비교적 적게 등장한 편이었다.

역사주의의 경우 고대에서 19세기까지 각 시대별 스타일이 다양하게 재등장하였으며, 년도별 주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대별 등장 빈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스타일이 주로 등장한데 비해 국외

95)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96) 장희숙,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97) 류순경,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2.

98) 유홍식, 「1990년대 패션에 재현된 “헵번 룩”에 관한 연구」, 상지전문대논문집 제16집, 1997, pp.219-220.

99)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에서는 바로크, 로코코, 버슬 스타일이 많이 표현되었다.

20세기 패션의 경우 국내·외 모두 20세기 초반의 스타일이 재등장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1940년대의 밀리터리 룩으로부터 1900년대 후반의 스타일들은 반복해서 등장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스타일은 거의 매년 등장함으로써 1990년대 복고주의 패션의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민속주의의 경우 국내·외 모두 아시아 국가의 복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오리엔탈리즘이 유행을 하였다. 국내는 한국적인 디자인이 매년 등장하여 단연 최고의 민속주제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풍, 인디언풍, 몽고풍의 순서로 등장하였다. 국외의 경우 중국, 인도, 일본, 아프리카 등이 인기 있는 민속주제로 활용되었다. 민속주의에 있어서 국내·외의 큰 차이점은 국내에는 한국주제가 매년 등장하지만, 일본풍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국외에는 한국풍은 없는 대신 일본풍을 비롯한 타 아시아 복식 스타일만 대두되고 있어 한국복식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주의의 경우 무늬, 소재, 염색과 색상, 실루엣 등을 통해 자연회귀를 표현하였다. 무늬는 열대성 식물을 나타내는 트로피컬 무늬, 꽃무늬, 나뭇잎 무늬, 동물무늬, 곤충무늬가 사용되었고, 소재로는 천연소재인 실크, 마, 삼베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천연염료를 사용한 색상과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이 사용되었다.

국외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은 [표 6] 과 같다.

[표 4] 와 [표 6] 의 대표적 스타일 등을 통해서 국내의 복고주의 패션의 디자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역사주의의 경우 국내 패션은 과거복식의 재현보다는 실루엣이나 디테일 등에서 응용을 주로 하였고, 국외 패션은 [표 6] 의 깃스 겔 스타일의 경우와 같이 재현의 예도 적지 않았다. [표 6] 의 깃스 겔 스타일은 형태는 재현을 하였으나, 소재를 데님으로 사용함으로써 현

대화를 꾀하였다.

20세기 패션의 경우 재현과 응용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국내 패션에 비해 국외 패션에서 보다 대담한 표현이 나타났다.

민속주의의 경우 국내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계승을 위해 특히,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 노력을 보였으나, 국외에서는 동양에 대한 신비감으로 오리엔탈리즘 패션이 유행하면서 국내와 달리 일본풍 등이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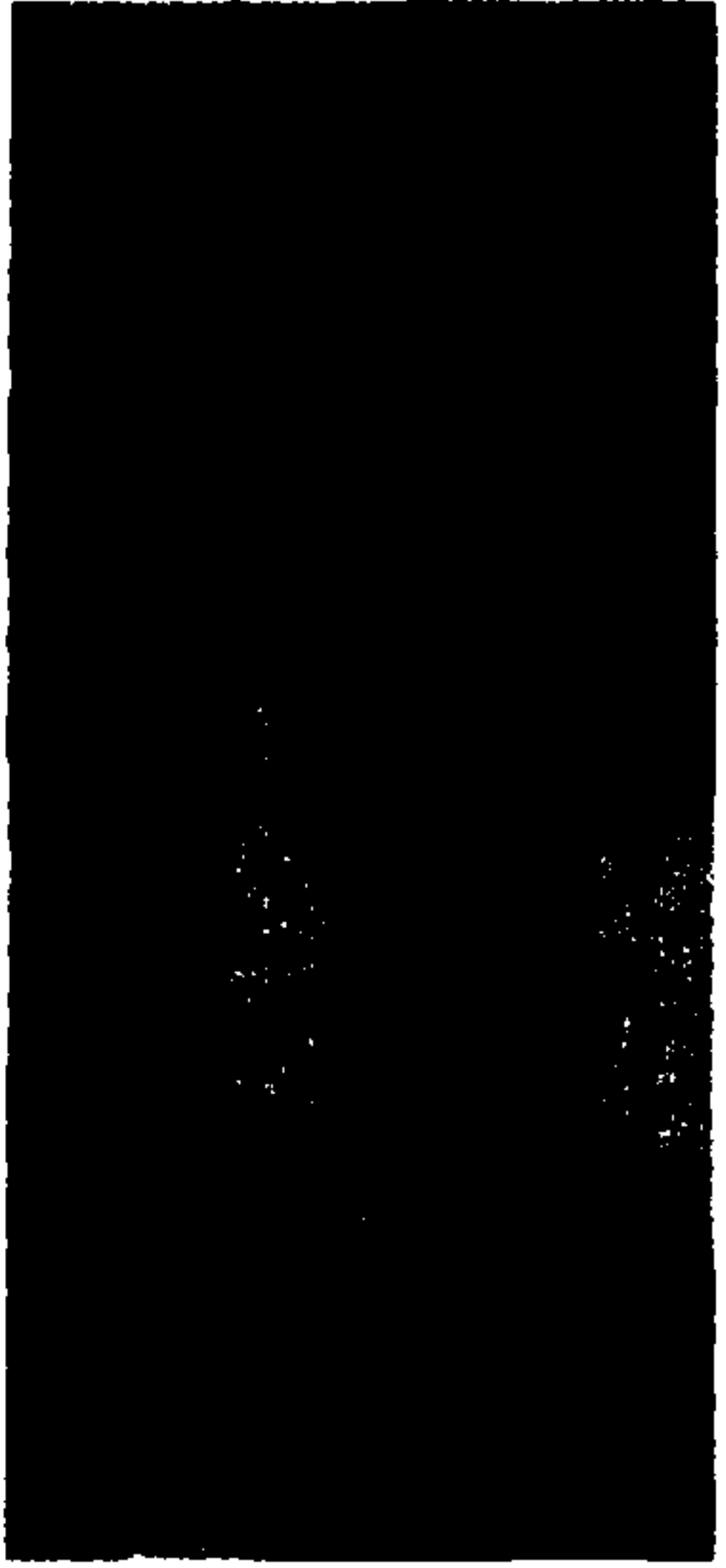
자연주의의 경우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꽃무늬, 천연 소재, 천연 염색과 색상,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 자연 회귀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패션 경향이 국내·외에 두루 나타났다.

1990년대의 국내의 복고주의 패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1990년대 동안 과거의 복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 지속적으로 재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국내·외 복고주의 확산 비교

[illegible]

[표 6] 국외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별 디자인

형태 유형	디자인	형태 유형	디자인
역사주의		민속주의	
	깁슨 걸 스타일의 재현 J. P. Gaulltierre, 1995, 10		기모노의 도입 Alberta Ferretti, 1997, 8
자연주의		20세기 패션	
	꽃무늬 프린트 Agnès B./Jean Colonna 1994, 2		1960년대 스타일 재현과 응용 K. Lagerfeld, 1999, 5

IV.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

복식은 생활상 기능을 가진 조형의 한 분야로¹⁰⁰⁾ 시대정신을 반영하며,¹⁰¹⁾ 다수 대중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로서¹⁰²⁾ 복식의 착용과 관찰행위는 인간의 미의식과 관계가 깊다.¹⁰³⁾

현대에 이르러 패션의 흐름은 하나의 경향이 끝난 후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과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혼재하면서 다양한 패션이 전개되며 선택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고주의 패션의 경우, 여러 시대의 전통적인 양식이나 민족간의 양식을 현대적 기법으로 절충하고, 유기적이고 응용된 장식을 사용하며, 조형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과거 복식을 재현과 응용, 은유와 상징을 통해 새롭게 재등장시켰다.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실루엣, 디테일, 소재, 색상, 문양, 장식 등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복고주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재현성, 순수성, 전통성, 장식성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재현성

100) 조규화, 「복식 사전」, 서울: 경춘사, 1995, p.19.

101) James Laver,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6, p.238.

102)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p.293

103) 공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p. i - ii.

복고주의 패션의 기본 개념이 과거에 대한 향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과거 복식의 재현은 복고주의 패션이 표현하는 조형적 의지의 근본이 된다.

재현성은 과거 복식이 현대 복식으로 재등장한 복식을 통해 파악될 수 있으므로 복고주의 패션 유형 중 역사주의와 20세기 패션이 주 파악 대상이 된다.

재현성은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과거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응용·절충·복합시키는 표현 특성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¹⁰⁴⁾

재현성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엠파이어, 버슬 스타일 등 19세기 이전 복식과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등 20세기 복식의 재등장 복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 복식은 1996년 앙드레 김이 발표한 작품 중, 파라오의 크래프트 형태를 금박으로 장식하고, 금색, 청색 등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한 드레스에 의해 재현되었다.

<사진 19>는 이신우의 1995년 작품으로 허리 부분을 줄로 묶어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도록 한 원피스이며 그리스 시대의 키톤을 축소시킨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중세 복식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사진 20>의 1993년, 매드믹스의 작품이 있는데, 중세 시대의 기독교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보석으로 수놓은 화려한 십자가 모양의 장식을 가죽 소재의 터프한 느낌인 점퍼와 팬츠에 조화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1999년도 아나카프리에서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은폐의 미를 보이는 로브 형태를 응용한 롱코트를 선보였다.

104) 김윤주,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한국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1990-1997)-」, 1998,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르네상스 시대의 이미지를 응용한 복식으로는 <사진 21>의 앙드레 김의 작품이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복장을 연상시키는 러플 칼라의 재킷과 남자 바지형태인 트렁크 호즈 스타일의 스커트 허리에 진주로 장식한 벨트를 덧붙여 화려함을 더하여 주었다. 1992년 쉬폰 소재로 된 이규례의 작품에서 스모킹처리된 바디스와 트렁크 호즈 스타일의 스커트로 르네상스 복식을 재현하였다. 또한 1997년 송지오는 메디치 칼라를 사용한 재킷을 디자인하여 중세시대 디테일을 재현 시켰다.

바로크 시대의 복식을 응용한 복식으로는 <사진 22>의 F.O.9 작품이 있는데, 바로크 시대의 남성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피스 바디스에 많은 단추를 달고 넓은 커프스에 여러 개의 단추를 장식적으로 달아 바로크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그밖에 여성복 블라우스에 크라바트처럼 넓은 레이스를 묶어 바로크 스타일을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

로코코시대의 복식을 응용한 복식으로는 <사진 23>과 같이 마담 뽕빠두르가 입었던 로브 아라 프랑세즈(robe a la francaise)의 리본이 달린 스토크를 응용한 원피스가 있으며, 그밖에 1992년 앙드레 김의 작품 중 소매 중심을 핑크색 장미 꽃다발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검정 망사로 풍성한 볼륨을 넣은 파티용 드레스가 있다. 또한, 로코코시대의 남성복인 르덴고트(redingote)의 변형된 스타일로서 앞단이 길게 내려오면서 아래로 벌어지는 재킷에 큼직한 블랙 새틴 스카프를 묶은 의상 등도 재현되었다.

<사진 24>는 엠파이어 스타일로서 광택 있는 벨벳, 가벼운 오건디, 쉬폰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든 우아한 의상이다.

<사진 25>는 버슬 스타일로서 스커트 뒷부분에 주름을 여러 겹으로 잡아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승은은 일상복에서도 엉덩이 부분을 약간 강조하였는데 실크 타프타

로 엉덩이 부분을 둥글게 부풀게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복식처럼 과장되거나 완전 S자 실루엣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가볍게 흉내를 낸 정도에 그쳤다.

20세기 패션 중에서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복식이 비교적 많이 재현되었다.

1940년대의 젊음을 강조한ミリ터리 룩도 많이 재현되었는데, 어깨의 견장과 벨로우 포켓(bellows pocket), 금속단추 등의 디테일과 카키 색상, 단순한 실루엣 등으로ミリ터리 룩을 강조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1940년대와 달리 스커트보다는 바지와 조화가 더 눈에 띄었다<사진 26>.

1950년대의 헐리우드 룩은, 햅번 스타일(사진 27) 등이 대표적인데 영화 속에 등장한 스타일이 일상 생활에서 유행된 경우로, 1990년도에 다시 재현되었다.

1960년대의 스타일은 여러 양식들이 공존하였다. 마돈나의 얼굴이나, 모자 쓴 사람들(사진 28), 만화캐릭터 등 다양한 소재를 모티브로 티셔츠에 프린팅하여 팝 아트 양식을 재현하였으며, 옵 아트 양식의 재현으로 강렬한 옵티컬 프린트가 등장하였다(사진 29).

또한, A라인 수트와 1965년 피에르 가르탱이 선보였던 피트 앤 플레이어 원피스와 재킷도 재현되었다.

미니멀리즘 양식도 많이 재현되었는데, <사진 30>은 미니스타일로서 모던하고 간결하고 깔끔함을 표현하였다.

1970년대는 미디, 미니, 맥시 스커트와 판탈롱, 미래지향적인 패션이나 진즈가 유행이었으며, 스포티, 히피, 펑크,ミリ터리 룩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성의 구별이 없는 유니섹스 모드도 유행이었다.

<사진 31>은 1970년대의 힙본(hip bone) 스타일의 판탈롱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감각을 살려 광택 나는 신축 소재의 짧은 상의와 조화를 시켰다.

<사진 32>는 스포티한 캐주얼웨어로 1970년대의 성구별이 없는 유니섹스 모드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사진 33>에서와 같이 프린지가 길게 늘어진 1970년대의 히피 풍도 재현되었다. 그리고 섹시 풍과 와일드한 핑크 록을 믹스시킨 스타일도 등장하였다.

<사진 34>는 각지고 과장된 어깨를 강조하는 동물 무늬 프린트의 큼직한 재킷과 가죽으로 된 미니스커트로 1980년대를 재현하고 있다.

2. 순수성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상징성의 결여, 독자성의 상실, 자연성의 상실, 인간성·개성의 상실 속에서 인간적인 것, 기계미를 벗어난 자연미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이 자연주의(Ecology) 패션으로서 인공적이며 기계화된 환경을 거부하고 옛날의 꾸밈없는 자연그대로를 표현하여 자연성과 인간성의 회복을 꾀하며 동물, 식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디자인 면에서는 지나치게 장식적이거나 조형적, 기교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수수하고 활동적이며 편안한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소재로는 천연섬유를 많이 사용하고 동물, 식물 문양과 꽃과 열매 등의 프린트 무늬를 많이 사용하여 전원의 정취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복식 표현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원

래 상태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조형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 35>는 자연의 야성미를 직접 표현한 동물 무늬 프린트로 된 작품이며, <사진 36>은 꽃, 나비, 무당벌레 등을 무늬로 프린트한 작품으로, 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그밖에 직접 페인트를 칠해 독특한 질감효과를 내거나, 직물에 나염을 하여 발랄하고 경쾌한 생동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러움, 순수함을 추구하였다.

자연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핸드 메이드의 선호, 천연의 생지와 에크루(ecru)계열의 색 사용, 자연적 질감이나 천연 소재 활용(사진 37)등의 방법으로 자연의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사진 38>은 페전트 드레스를 응용한 오브제의 작품으로 전원풍의 분위기를 표현하여 자연의 순수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밖에 숲 속의 무성한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스커트 장식 등으로 순수한 자연적인 이미지를 도입한 작품,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친 질감의 직물과 천연 염료를 사용한 소박한 색상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실루엣 등을 통해 원시적이고 소박한 순수성을 표현하였다.

자연의 순수성으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순수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표현 될 것이다.

3. 전통성

각 지역, 나라, 민족은 역사를 통해 계승한 고유한 전통을 이어가는데, 다양한 민속복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복고주의 패션의 중요한 유형인 민속주의를 통해 전통성의 조형의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는 여러 나라의 민속 복식과 민속품 등이 모티브로 사용되어 서양복과 결합되어 새로운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날 때, 고유한 전통을 유지 계승하려는 전통 정신이 표출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에 대한 의식은 동양에 대한 신비감과 더불어, 서양패션에서 오리엔탈리즘으로 구체화되었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의 민속복식과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문양, 색채, 소재, 장식, 실루엣 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과 민속품 등을 현대복식과 융합시켜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였다.

<사진 39>는 설윤희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와 웃고름을 주제로 하여 모던한 도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이영희의 1995년도 작품인 <사진 40>은 한복의 치마를 서양복의 파티 드레스로 재현한 작품이다.

<사진 41>은 한국적인 문양을 응용한 작품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를 문양으로 한 이신우의 1995년 작품이다.

그밖에 한국적인 문양을 이용한 작품으로 1991년에 이광희가 보상문양과 토기문양을 사용하였고, 1995년에는 진태옥이 미인도를 1998년에 이상봉이 대나무 수목화를 문양으로 사용하여 한국적인 전통성을 나타내었다.

한국적인 소재인 모시, 삼베, 광목 등의 소박한 질감의 천연 소재로 된 작품과 소재를 누벼 장식한 원피스, 조끼, 반코트 등의 작품도 한국의 전통성을 강조하였다.

중국풍은 한국적인 작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민속품인데, 소재나 색상, 문양, 디테일 등에서 중국복식의 전통을 표현하였다. <사진 42>의 경

우 차이니즈 칼라, 스커트의 슬릿 등이 중국 민속복식의 특징을 살렸으나, 네 크라인의 사선 여임을 지퍼로 현대화하였다. 그밖에 매듭 단추를 사용한 차 이니즈 풍 재킷과 진 바지를 조화시켜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한 작품 등이 중국의 전통성을 표현하였다.

기타 동남아 민속풍으로 <사진 43>과 같이 베트남 민속복식도 등장하였는데, 실루엣이나 문양, 모자 등의 액세서리로 동남아 정취를 느끼게 하였다.

인디언 풍은 문양이나 디테일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사진 44>는 니트 스커트에 인디언 풍 모티브의 문양으로 인디언의 전통성을 강조하였고, <사진 45>는 프린지로 인디언 민속을 표현하였다.

<사진 46>은 우리나라의 색동을 연상시키는 아프리카의 에스닉한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성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풍, 중국풍, 동남아시아풍, 인디언풍, 아프리카풍 등 다양한 민속복식과 문화의 현대적 표현으로 각 국의 민속적 전통성이 복식 조형을 통해 추구되었다.

4. 장식성

장식성은 모더니즘이 극도의 경제성, 효율성, 기하학적인 기능주의를 추구하면서 장식성을 최악으로 여길 만큼 배제시킨 것에 대한 반동현상으로,¹⁰⁵⁾ 모던함과 심플함의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감성으로 다시 장식에 몰입·매료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식을 누락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게 되었다.¹⁰⁶⁾

105) Ibid., p.66.

106)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9.

복식에 장식으로 도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장식적 요소를 이용하여 고전적 의미를 재해석하며, 이를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모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를 장식적으로 복식에 도입하거나, 패션이 여러 민족, 지역의 고유 민속복을 현대복식에 절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국적인 문양이나 부분장식, 표면장식, 색채 등이 새로운 장식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화려한 색채의 사용과 다양한 문양과 프린트, 자수, 비이드나 세퀸, 인조보석이나 실버와 골드 등의 표면장식, 첨단기술로 짜여진 다양한 질감의 소재 등도 장식성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고주의 패션의 모든 유형을 통해 장식성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20>의 경우 중세시대의 기독교적이며 화려한 특성을 이용하여 보석으로 수놓은 화려한 십자가 모양의 장식을 가죽 소재의 터프한 느낌인 점퍼에 비즈로 장식하여 역사주의를 통해 장식성을 표현하였으며, <사진 21>에서는 러플 칼라와 풍성한 주름의 스커트에서 르네상스의 화려함이 장식되었다.

<사진 29>는 옵티컬 문양으로 스커트에 장식성을 높였으며, <사진 35>와 <사진 36>은 동물 무늬, 꽃 무늬로 장식성의 효과를 크게 하였다.

<사진 33>에서는 길게 늘어진 프린지로 히피룩에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사진 31>과 <사진 37>은 소재의 자연스러움과 광택으로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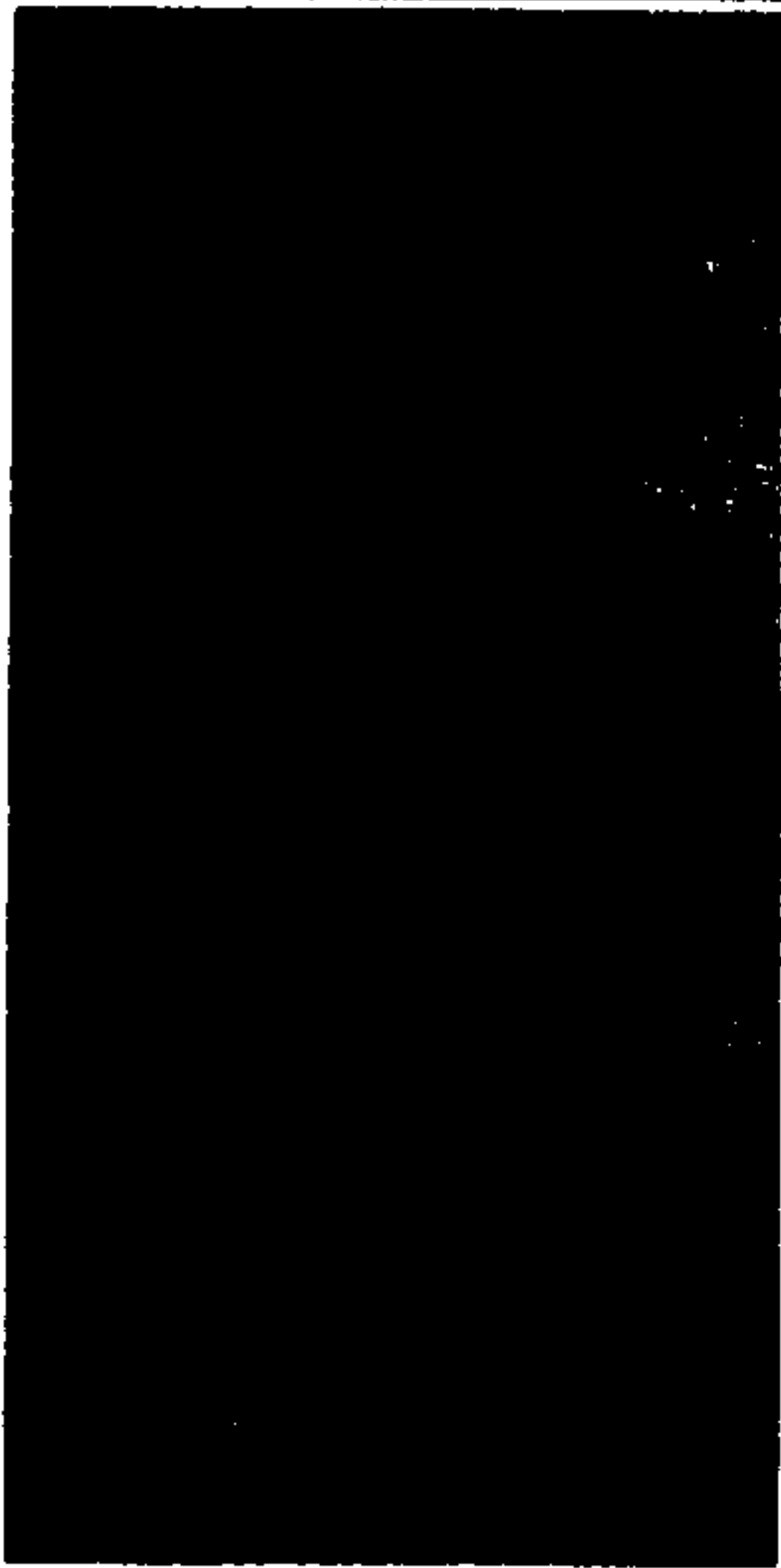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 고유의 매듭장식, 누비장식, 옷고름, 한국적 소재 등과 민속적인 문양과 장신구 등을 통해 민속적인 장식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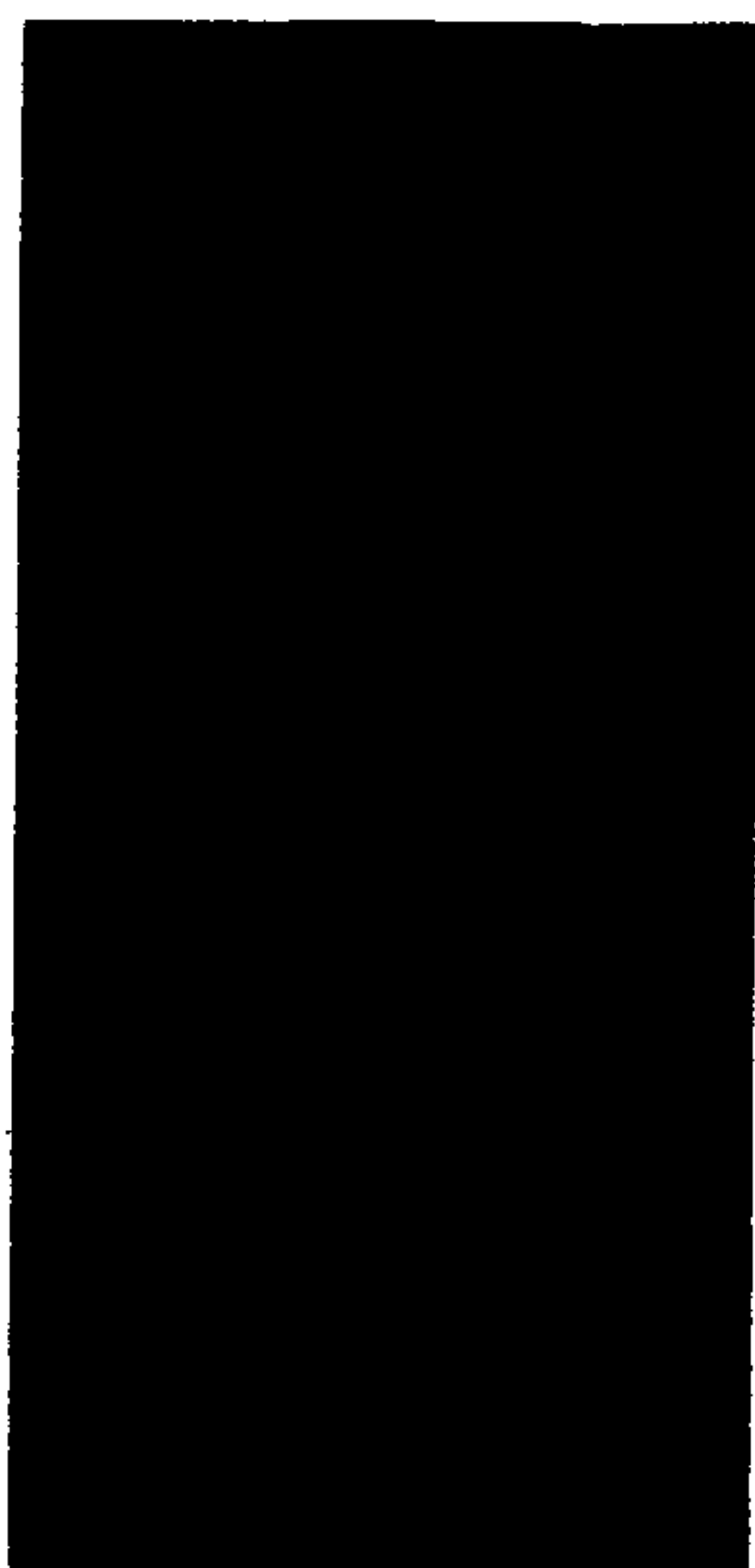
이성에서 살펴본 복고주의의 조형성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은 역사주의, 민속주의, 자연주의, 20세기 패션 등

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디테일, 소재, 색상, 문양, 실루엣 등의 조형요소에 의해 재현성, 순수성, 전통성, 장식성으로 표현되었다.

[표 7]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

형태 조형성	디자인	조형요소	형태 조형성	디자인	조형요소
재현성		• 디테일 • 실루엣	전통성		• 소재 • 색상 • 디테일 • 문양 • 실루엣
	• 과거의 요소들이 조합적으로 도입되어 재현			• 민속의상과 민속품의 고유한 특성이 모티브로 사용	
순수성		• 소재 • 색상 • 디테일 • 문양 • 실루엣	장식성		• 디테일 • 색상 • 트리밍 • 문양
	• 자연성과 인간성 회복⇒자연미 • 동물, 식물 등을 모티브로 사용			• 복고주의 패션 유형 전체에서 나타남.	



<사진 19> 그리스복식 용용
이신우, 1995. 2



<사진 20> 중세복식 용용
메드릭스,
1993, 1



<사진 21> 르네상스복식
용용,
앙드레 김,
1991, 11



<사진 22> 바로크복식
용용
F.O.9,
1996, 6



<사진 23> 로코코복식
이정석, 1994, 4



<사진 24> 엠파이어 스타일
용용
앙드레 김,
1996, 12



<사진 25> 버슬 스타일
웅용,
앙드레 김,
1998, 12



<사진 26> 1940년대 스타일
마틴 싯봉,
1997, 5



<사진 27> 1950년대 스타일
박동준,
1996, 12



<사진 28> 1960년대 스타일
메드릭스, 199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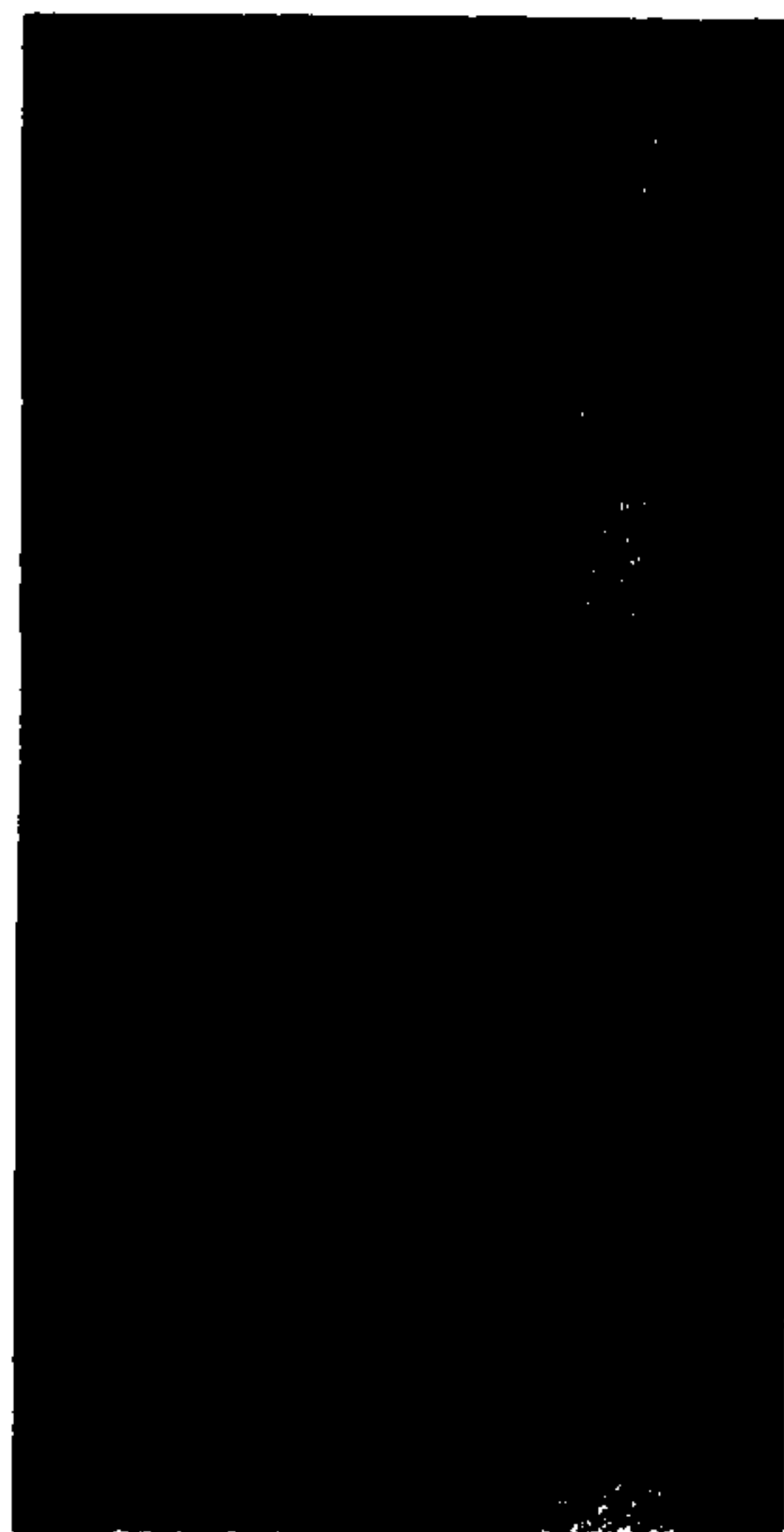
<사진 29> 1960년대 스타일
GV2, 1998, 2



<사진 30> 1960년대 스타일
비바유, 1995, 5



<사진 31> 1970년대 스타일
예고, 1996, 3



<사진 32> 1970년대 스타일
ENC, 199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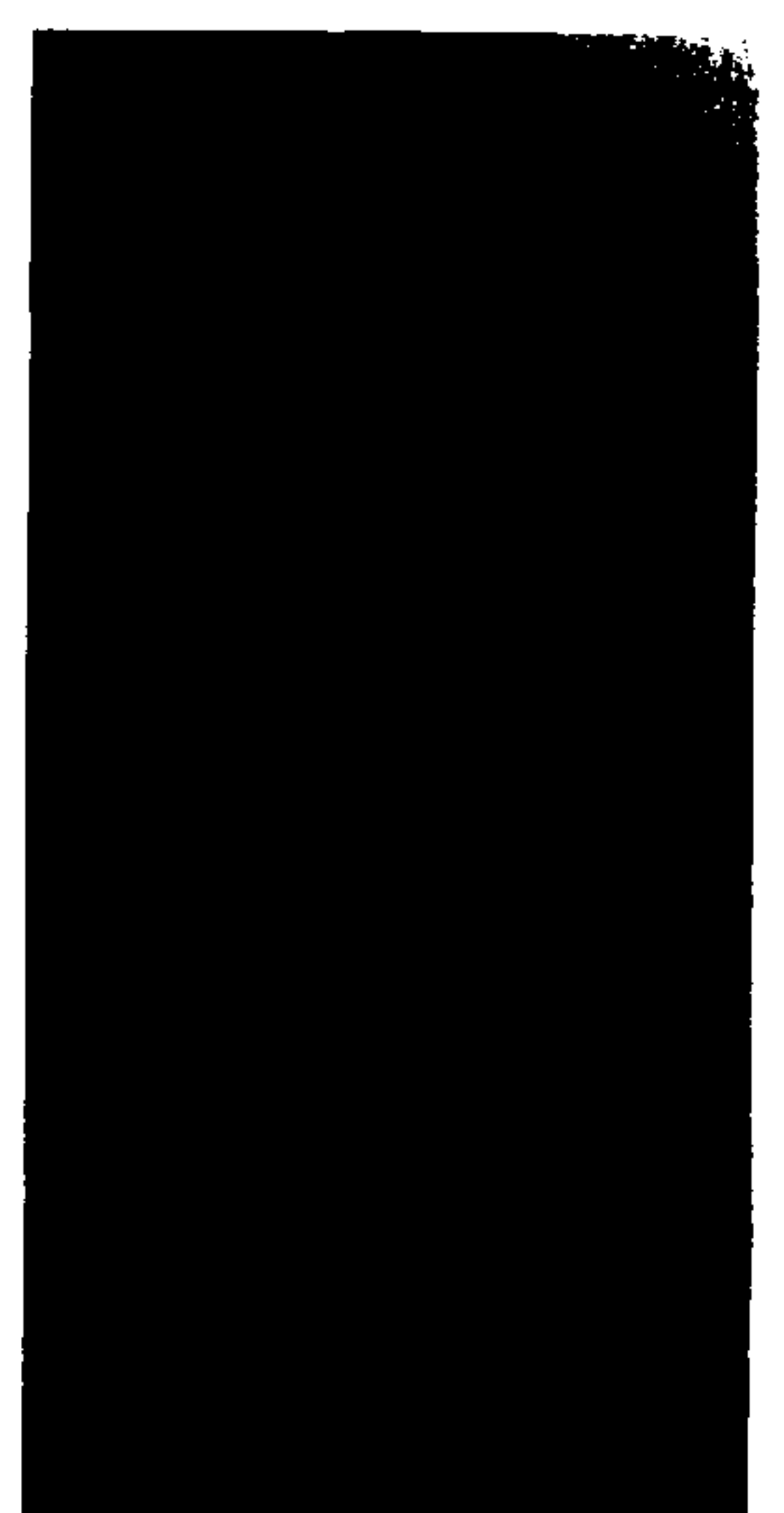
<사진 33> 1970년대 스타일
김동수, 1998, 1



<사진 34> 1980년대 스타일
하용수(베이직),
1993, 1



<사진 35> 동물무늬
프린트
박윤정, 1997, 2



<사진 36> 꽃, 나비무늬
프린트
셀리, 199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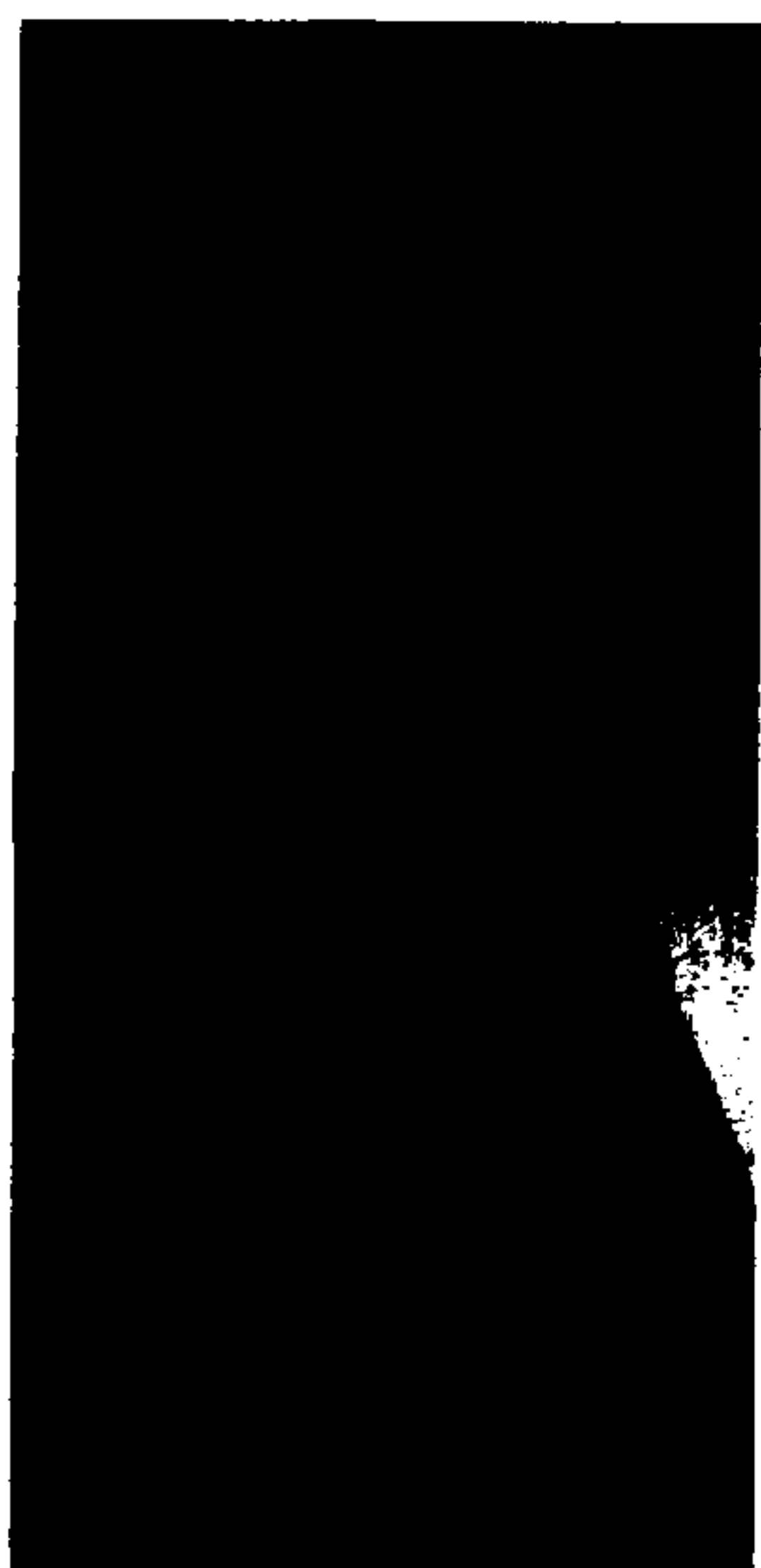
<사진 37> 천연소재
이신우, 1992, 11



<사진 38> 패전트 스타일
오브제, 199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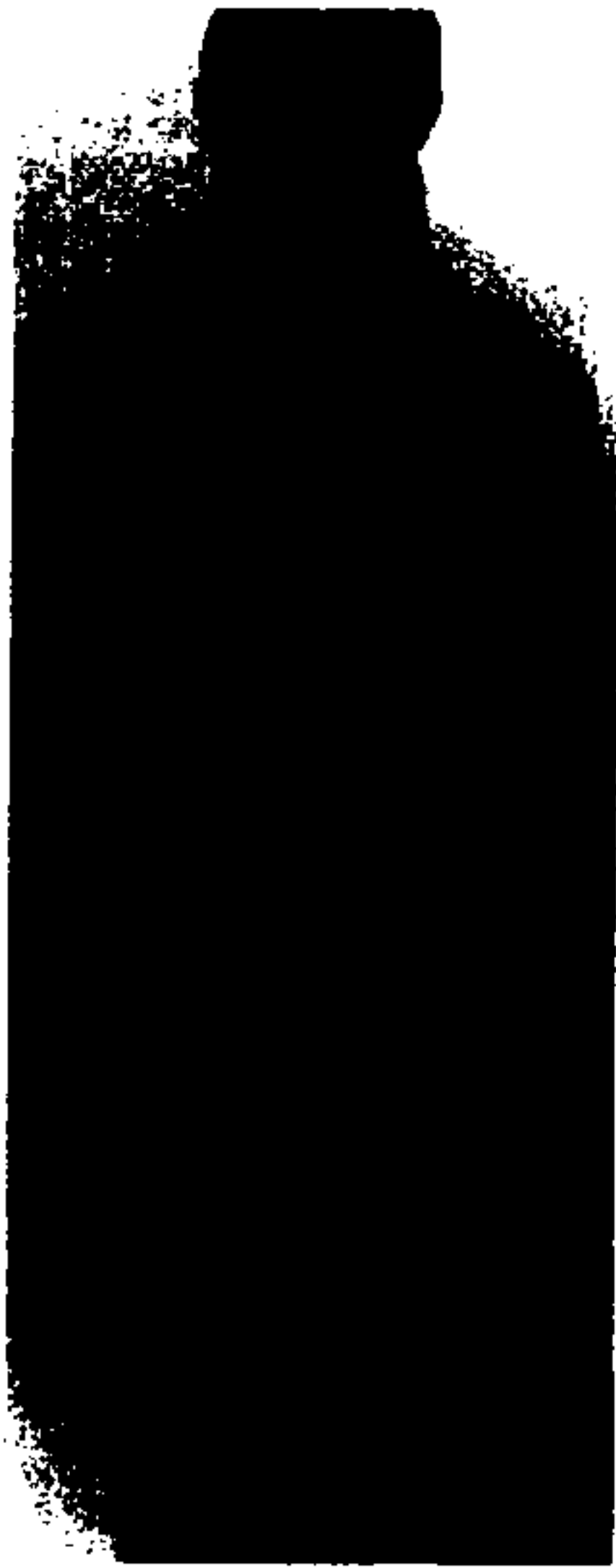
<사진 39> 한국풍
설윤형, 199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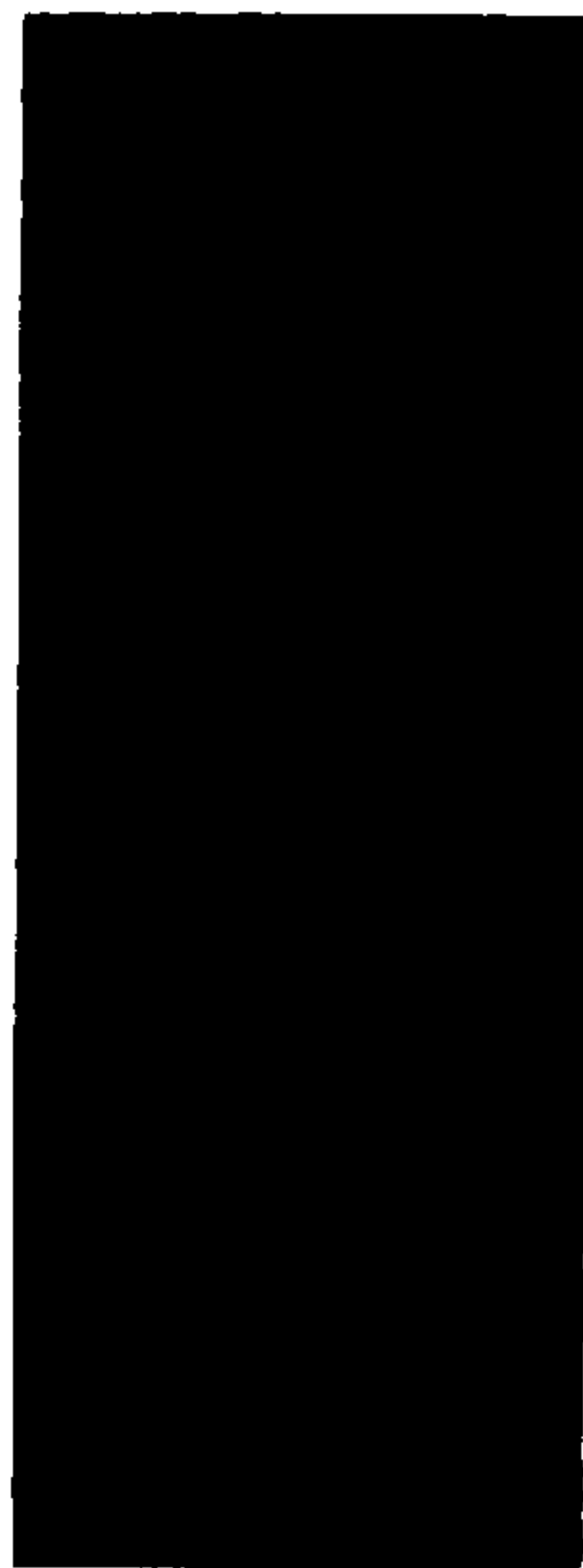
<사진 40> 한국풍
이영희, 199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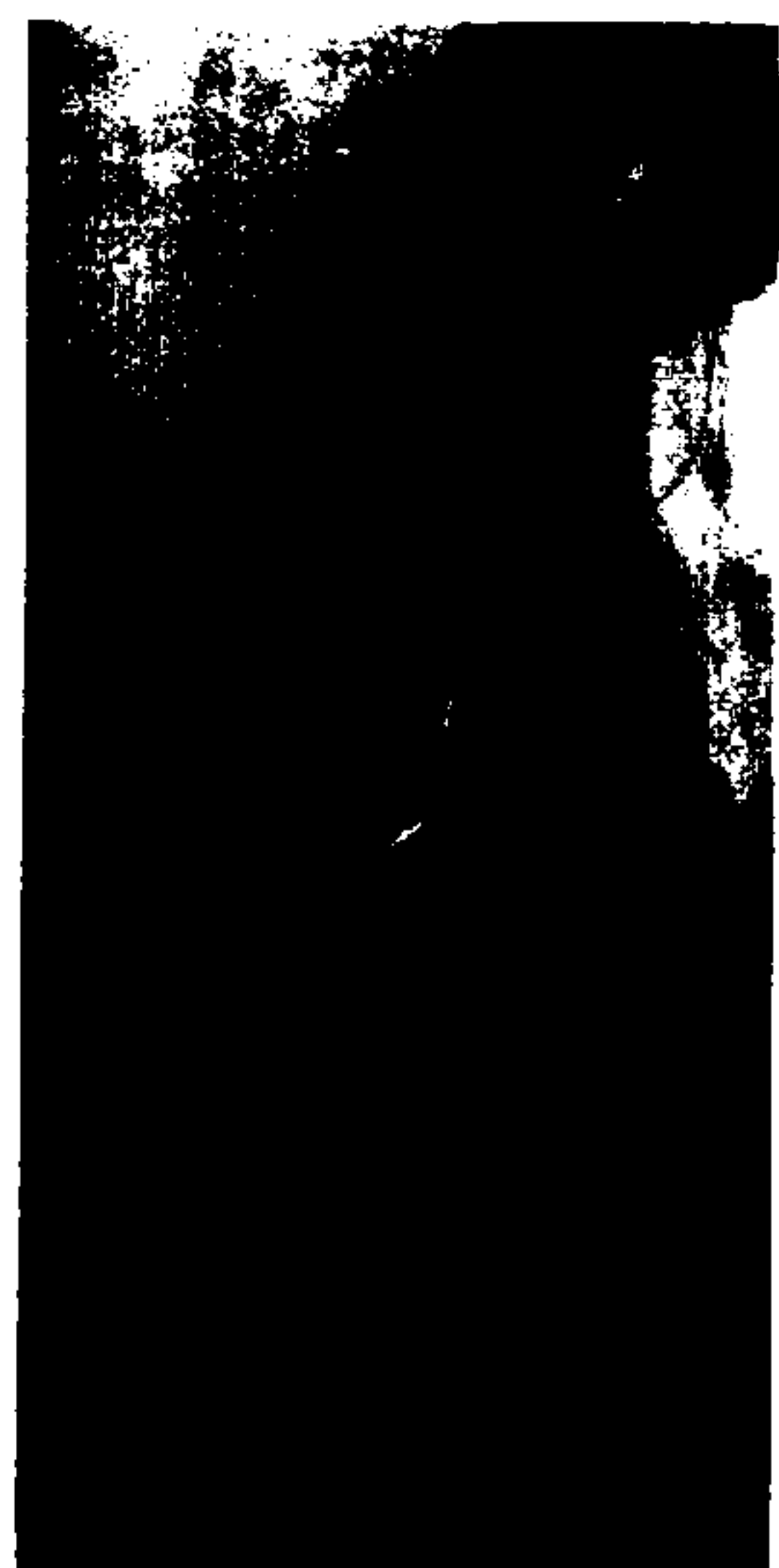
<사진 41> 한국풍
이신우, 1994, 5



<사진 42> 중국풍
텔레그래프,
199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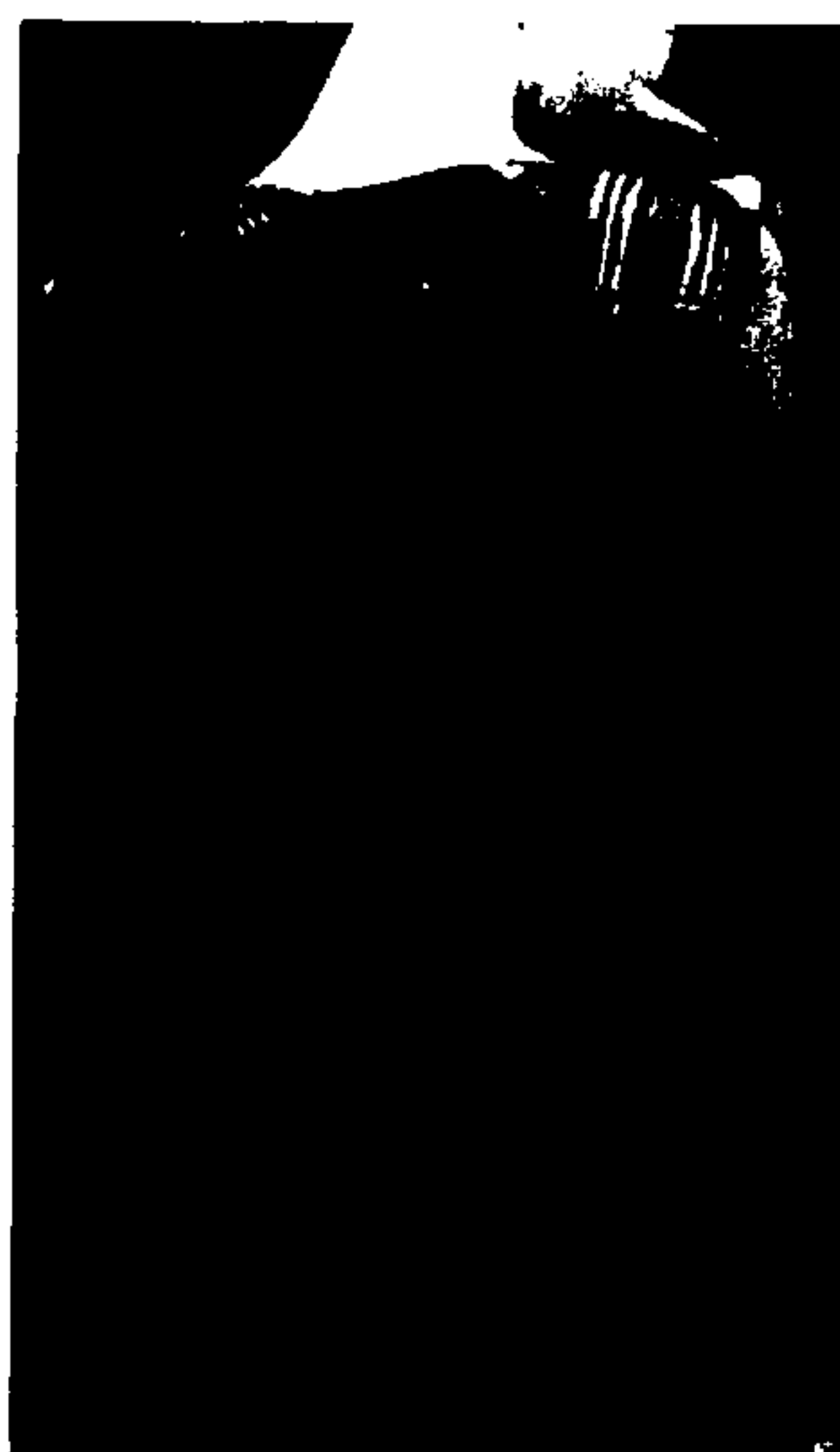
<사진 43> 베트남 풍
꾸주베,
1994, 3



<사진 44> 인디언풍
마썸모,
1998, 11



<사진 45> 인디언풍
갤러리아 G
스트리트, 1999, 12



<사진 46> 아프리카 풍
문광자, 1994, 6

V.결 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과학기술발달과 대중문화의 홍수, 급변하는 정치 경제에 대한 도전적인 사회적 경향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성과 과거 시대에 대한 회귀를 지향하게 되었다.

패션에서도 복고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복식에서의 복고주의 경향은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 옛 양식이 현재의 인간의 감성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로 탄생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국내 패션에 표현된 복고주의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패션의 조형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분석자료는 여성동아와 ELLE(한국판)의 작품사진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표현된 유형은 역사주의, 자연주의, 민속주의, 20세기 패션 등이며, 과거 복식의 실루엣, 디테일, 소재, 이미지 등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혼합·절충하여 복고주의를 표현하였다. 복고주의의 네 유형은 거의 매년 함께 등장하였는데 역사주의와 20세기 패션이 특히 많이 표현되었다.

둘째, 국내·외 복고주의 패션을 비교해 보면, 역사주의의 경우 국내복식에서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이 재현보다는 응용된 경우가 많은 반면 서

양복식에서는 바로크, 로코코, 버슬 스타일 등이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패션의 경우 국내·외 모두 1940년대 이후의 복식이 거의 매년 등장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 1970년대의 복식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국내복식의 경우 극단적이거나 너무 과장된 복식은 별로 없었으며, ‘해변 룩’, ‘미니멀리즘’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셋째, 민속주의의 경우 오리엔탈리즘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국내·외 패션 경향의 차이로는 서양에서는 일본풍이 크게 대두된 반면 국내에서는 일본풍은 거의 표현하지 않았고 중국풍과 국내 전통복식과 문화의 응용이 주로 선보였다.

자연주의는 문양, 소재, 염색과 색상, 실루엣 등을 통해 자연회귀를 표현하였다. 자연무늬, 천연소재, 천연염색,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 자연 회귀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패션경향이 국내·외에 두루 나타났다.

넷째,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재현성, 순수성, 전통성, 장식성 등으로 나타났다.

재현성은 고대에서 20세기까지의 과거 복식이 재등장함으로써 표현되는 디테일, 색상, 문양, 실루엣, 이미지 등을 통해 파악되며, 순수성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과 원래의 천연상태를 추구하는 조형의지를 나타내며, 전통성은 고유한 민속문화를 현대와 접목시킴으로써 표출되었다. 장식성은 단순함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현대 패션의 특성인 다원화, 다양화, 복합화의 추세 속에서 복고주의 패션은 과거 복식을 새롭게 응용하여 재등장시킴으로써 다양함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미래패션에서도 지속적인 전개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유형 및 조형적 특성은 21세기의 국내의 패션 디자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페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 공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0
4. 김민수, 「모던디자인과 비평」, 안그라픽스, 1997
5. 김미진, 「복고적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디자인 연구-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김민자, 「옛날은 어떻게 다시 오는가?」, 월간 「멋」, 1991년 10월호
7. 김민자, 「한국 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1990. 6),
8. 김민자·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학회지 제21호, 1993,
9. 김억중, “이상적인 모방과 역사적 연속성”, 「공간」, 1985년 1월
10. 김영모 외 4인, 「옛센스 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8
11. 김윤주, 「1990년대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연구 -한국의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1990-1997)」,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Vol.1」, 서울: 도서출판 시대, 1988
13.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Vol.2」, 서울: 도서출판 시대, 1988
14. 김희균,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5. 노남형, 「근대이후 건축양식의 복고성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6. 류순경,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7.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97
18.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9. 박종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0. 백승희, 「신 회귀(Neo Retro)경향에 의한 식물이미지 패턴 개발 연구: 발염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1. 백영자, 유효순, 「서양 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89
22. 「삼성 Fashion trend」, 삼성 패션연구소, 1996
23.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7
24. 손경희,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5. 송미숙, 「시간과 공간의 패러디」, 계간미술, 1987년 봄호
26. 송명진·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제18호, 1992
27. 신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8. 신상옥, 「서양 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2
29. 안선경, 「현대 복식에 나타난 추의 개념」,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0. 양윤정, 「현대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ural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1. 양주동, 「국어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아름, 1984
32. 유송옥 외 2인, 「복식 문화」, 서울: 교문사, 1999

33. 유재부, 「세기말적 경향과 패러다임의 전환」, Fashion Today, 1995년 7월
34. 유홍식, 「1990년대 패션에 재현된 “헵번룩”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논문집 제16집, 1997
35. 이선주, 「Post-Modernism의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3
36. 이은영, 「패션 마케팅」, 서울: 교문사, 1999
37.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38.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39. 이호정, 「패션 마케팅 & 패션 트렌드 분석」, 교학연구사, 1996
40. 장경주,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41. 장희숙, 「현대 Fashion에 나타난 Retro경향에 관한 연구-1990년대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2. 전소영, 「현대패션에 나타난 ECOLOGY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3. 정연자, 「모즈룩(Mods Look)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33호, 1996
44.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45.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9
46. 정홍숙,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Baroque 복식의 loop와 tassel을 중심으로-」, 한국 복식학회지, 제25호, 1995
47. 조기정, 「'92 S/SParis Prêt-à-Porter Collection」, 월간 「멋」, 동아일보사, 1991년 11월
48.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1995
49.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9
50. 조옥례, 「복고풍의 패션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논문집, 11, 1992년 10월

51.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현상」,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2. 최해주, 「고대 이집트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1호, 1982
53. 최해주, 「I.M.F. 체제 직전의 국내 복식에 표현된 가치관과 미의식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제48호, 1999
54.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2권」, 서울: 어문각, 1992
55.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방송연감」, 1991
56. 한완상 외, 「한국 사회학」, 서울: 민음사, 1996
57. 허갑섭, 「복식문화와 복장사」, 서울: 이즘, 1998
58.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9. Angela Royston, 「The Passion for Fashion」, Limpfied: Dragon's World Ltd., 1988
60. AnnaLee Gold, 「90 Years of fashion」, N. Y: Fairchild Fashion Group, 1991
61. David Bond저,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2000년 개정판
62.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 T. Batsford Ltd, 1987
63. Fashion Marketing, 1997년 5월호
64.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1987
65. Frances Kennett, 「World Dress」, Garoline Macdonald-Haig Mitchell Beazle, 1994
66. Ihab Hassan저, 정정호 편역, 「포스트모더니즘」, 종로서적, 1985

67.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A Histtry of Fashion」 , by orbis Publishing Limited, 1980
68. James Laver, 「Fashion Make Social History」 , N.Y.: House of Worth, 1962
69.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6
70. Madde Garland,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0
71. Maggi Pexton Murray, 「Changing style in fashion」 , N. Y: Fairchild Pucblications, 1989
72. 「Modele Dictionary(FranÇAis-Koreen)」 , 서울: 삼화출판사, 1993
73. Malcolm Barnard, 「Fashion as Communication」 , Routledge, 1996
74. M. E. Roach & J. 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 N.Y.: John Wiley & Sons, Inc., 1965
75.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75
76. Valerie Mendes, Amy de la Have, 「20th century Fashion」 , London: Thames & Hudson, 1999
77. 「Webstert's college dictionary」 , N.Y.:Random House,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Domestic Retrospective Fashion

- Focusing On 1990s -

An, Eun-Kyoung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As science and industry develop rapidly an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pread through the society,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re on the rise and the recurrent phenomena for the past and nature was emphasized.

Retrospective trend happened to fashion in late 20th century also and the costumes of the past were applied and revived.

This thesis analyzed the types and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trospective fashion.

The fashion photographs from “Yeosung - Donga” and Korean “Elle” were used to analyze the domestic fashion in 1990s.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types of domestic retro fashion were historicism, ecology, ethnic, 20th century fashion.

Retro fashion was expressed through applying and reappearing silhouette, detail, fabric and image of the costumes of the past.

2. Renaissance, Baroque and Rococo styles were mainly applied in domestic fashion and Baroque, Rococo and Bustle styles were applied much in foreign fashion.

The costumes of 1960s and 1970s were applied much in both retro fashion.

3. Orientalism was emphasized and Korean traditional styles and Chinese costumes were expressed mainly in domestic fashion. But Japanese styles were reappeared much in foreign fashion.

Fashion trend recurrent and intimate to the nature appeared in both retro fashion through patterns of the nature, natural fabrics, natural and comfortable silhouette and natural dying.

4.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tro fashion were recurrence, purity, tradition and decoration.

As retro fashion applies costumes of the past newly, it supplies unlimited possibilities to the present fashion which seeks versatility.